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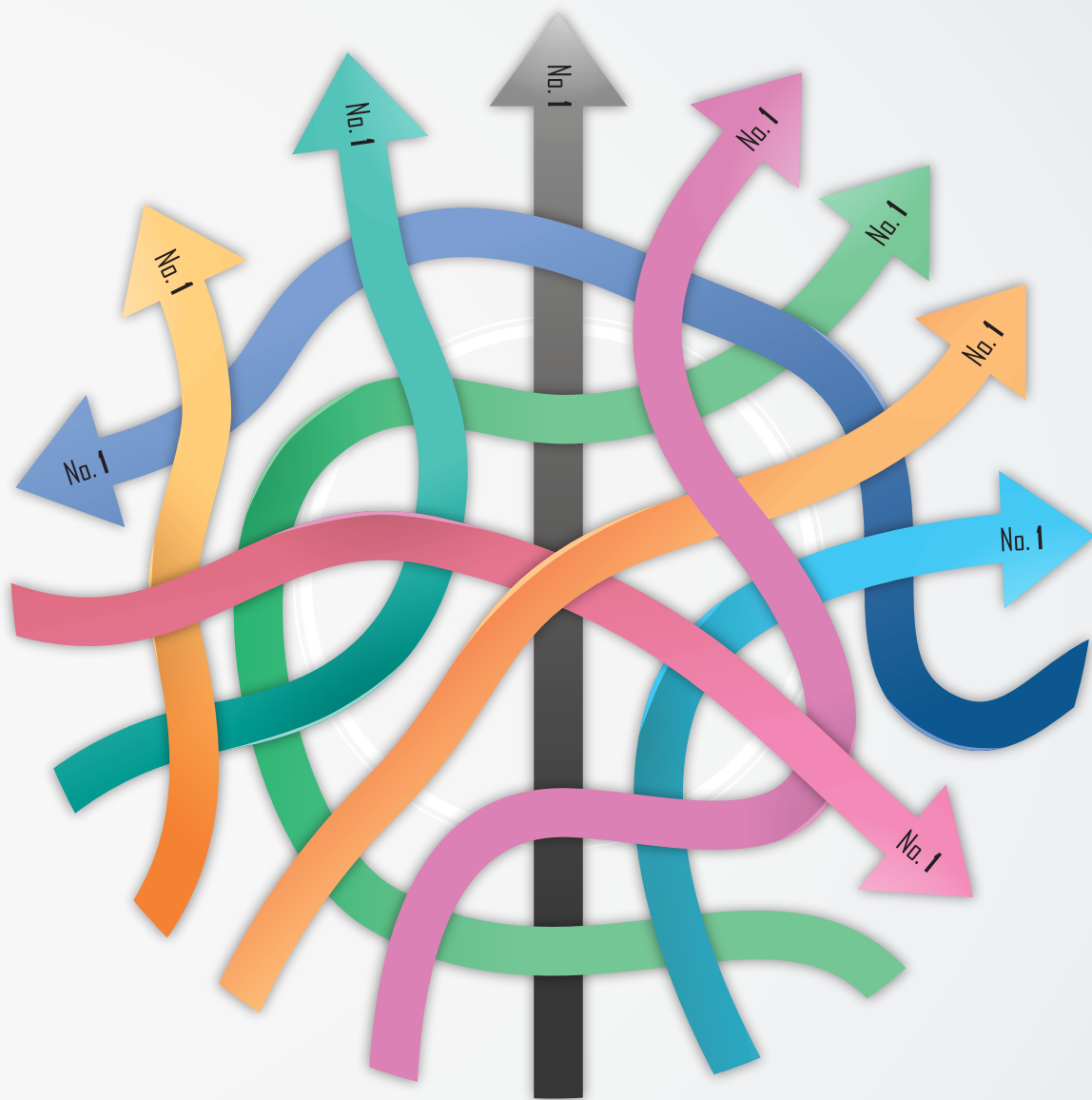
소신



보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7 (4350) 봄호 통권19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7 030405 Vol. 19



所信

SPECIAL

No.1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a word of editor

단 한번 불린 노래 명석하고도 음악적 소질이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부친도 그 재능을 알아봤던지 중학 시절 세계 최고급 기타를 사주었던 터이다. 젊은이는 대입을 위해 억누른 음악적 재능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곡을 써 풀었다. 당대의 유명 청년 대중음악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직접 불러 발표했다. 멜로디는 가볍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 올리고 내렸다. 가사는 비판적 상징어를 한 두 단어 섞어 푸르른 청년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담았다. 불행히도 이 청년의 멋진 음악은 이날만 불려졌다. '불온한 시대'에 청년들의 움직임 거의 다는 불안을 야기한다고 안달하고 옥박지르던 시대였다. 소질의 질식 시대이자, 소양의 획일화 시대였다. ●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능력을 지닌 청년의 부친에게 청춘들의 기운찬 감성, 혹은 에 두른 세상 비판은 그 즉시 '불온'으로 보고됐다. 그날 밤 귀가한 청년은 아버지의 분노에 당신이 사준 기타의 사운드홀에 머리가 빠져나왔다. 청년은 곧 미국 유수의 명문대 유학길에 올랐다. 자신이 간 게 아니고, 사회의 선입견과 아버지의 권위의식이 간 셈이다. 음악과는 전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박사까지 마쳤다. 귀국한 그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방향했다. 부친은 대학을 세워주겠노라고도 했었다. 그는 결국 예능 분야의 기업을 출범시켰다. 회사는 우수 인력이 있을 때는 잘 나갔고, 그 반대일 때는 흔들렸다. ● 음악에 대한 타고난 소질은 회한 같은 것이 겹쳤는지 그만 술과 어울려 비틀거렸다.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던 청년 시절의 작곡가, 가수

들도 서서히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갔다. 그는 뒤늦게 그들과 어울리며 많은 밤을 음악과 술로 지새웠다. 그의 기성세대들이 "공부는 때가 있다" 했듯이 그의 소질도 소양으로 숙성시켜야 할 적기가 필요했었다. 그랬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훌륭한 뮤지션을 가졌을 것이다. 타고난 '소질'에 스스로 달구며 실패와 성공으로 숙성된 '소양'에 의한 아름다운 '소신'의 스토리를 보고, 듣고, 즐겼을 것이다. ● 한 시대를 지나 미국 음악대학에서 공부한 한 대중 가수가 B급 정서의 댄스뮤직으로 세계를 품어냈다. 한류의 정점이라 하고, 돈으로 산정하기 좋아하는 경제적 호사가는 그의 특정 히트곡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1조를 넘는다고들 평했다. 청년의 부친도 음악 유학을 권유했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한 가치를 존중했어야 했다. 다만 저명한 대중음악 평론가 한 분이 일찍이 '한국의 빛나는 명 포크 송' 음반에 그날 직접 불러 발표된 그의 '단 한 곡으로 남은 소질'을 수록해 놓아 쓸쓸히 기념되고 있다. 이 '청년의 꿈'은 결국 달래지지 않고 한 음악카페의 계단에서 취한 채 굴러 끝내 접혔다. '꽃이 진다고 바람 탓'만 할 순 없다. 그럼에도 소양의 기회를 날려 소신이 돼보지 못한 채 스러진 안타까움은 질다. 수많은 한국의 소질들의 한 예일 뿐일 수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안타까움일 수 있다. / 南 ●

Only1

조선 = 소질 + 소양

No.1의 길에는 경쟁과 질투가 있다. Only 1의 길에는 소신과 열정이 있다.

특집기고
김동연 총장
이분열 교수
고지영 입학사정관

06



특집기고
박노자 교수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10



특집인터뷰
박준영 변호사

13



특집대담
구형일 교수
김태봉 교수
정승호 교수

16



특집 아주 젊은 소신
차수현 기계 11
조정훈 화공 11

18



특집 카운셀링
소신 승위는 젊음의 고민

20



AFTER YOU
글로벌 캠퍼스
2016 겨울 - 베이징이공대학

26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구형건 교수

28



세상에 울려 퍼질
아주인의 BOOK
김홍표 교수
김봉철 교수

30



전공소개
곽진 교수
사이버보안학과

32



Special Report
아카데미까지 노리는
<그린라이트>

34



Location
Premium
강소기업으로 가자
<동우화인켐>

36



내정신의 고향에서
이승훈 동문 / KBS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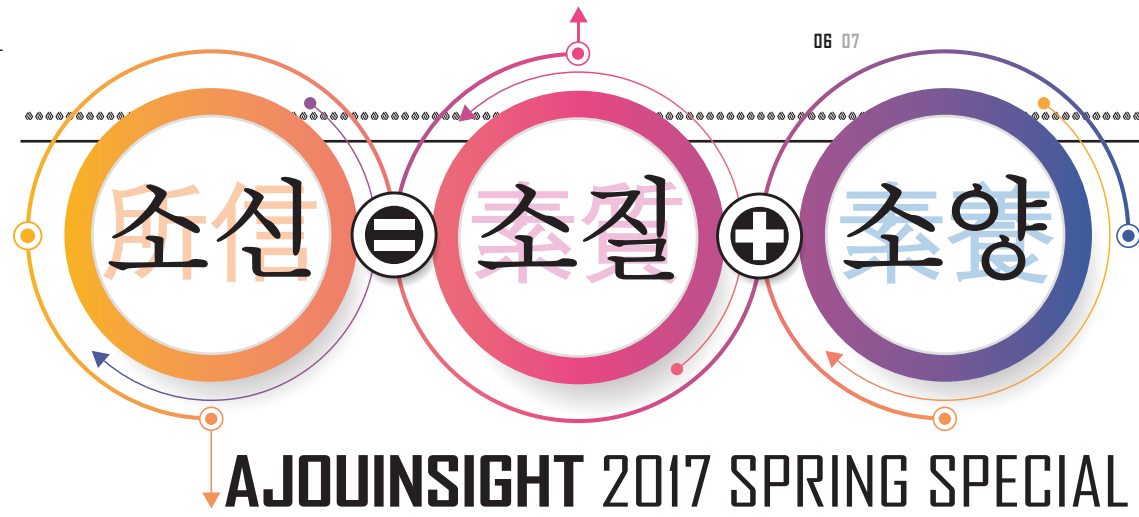
37



News
연구뉴스, 뉴스, Donation

38





로맹 가리(Roman Gary)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고 직업 외교관 생활을 오래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뿌리'란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 상을 받습니다. 한번 수상한 작가에게는 다시 주지 않는 상입니다. 그만큼 그는 인정받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는 19년 뒤 에밀 아자르(Emile Ajar)라고 하는 신예 작가가 나타나 '자기 앞의 생'이란 작품으로 같은 상을 받습니다. 아자르는 수상을 거부하는데, 공쿠르 아카데미는 "우리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한 권의 책에 투표한 것이다. 탄생과 죽음이 그렇듯, 공쿠르 상은 수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상자는 여전히 아자르이다"라고 답합니다. 그즈음 TV 프로그램에서 한 평론가는 로맹 가리의 작품에 대해 혹평을 한 뒤, 아자르를 격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문학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은 그로부터 6년 뒤에 벌어집니다. 66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로맹 가리가 유서에서 자신과 아자르가 동일인이란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동시대의 평론가와 문학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말합니다. 유서와 함께 남긴 글에서 로맹 가리는 "나는 이미 '어떤 어떤 작가'라는 고정 관념 속에 위치한 가상작가일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자기 앞의 생' 작품 말미에 한국인 소설가 한 분은 이런 취지의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삶에 대해 실증을 느꼈던 것이다. 새 이름을 만든 것은 그에게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모든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게 했다"고요.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학사(文學史)적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기 앞의 생'이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와 같은 대단한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 석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것이지만, 내가 부를 기회는 없이 남이 부르지만 하는 내 이름입니다. 혹시 나를 완전히 리셋(reset)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로맹 가리에게 에밀 아자르가 됐듯이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힌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절실함으로 새로운 자아(自我)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이름에 걸맞은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우리 아주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어디 내놔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자기다움'에서 나옵니다. 무섭게 변하는 미래의 특징

두 이름의 사나이



아주대학교 총장

행복의 연

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은 일상화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미래는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아주대 앞에도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남과 다른 자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짜 실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지문(指紋)같이 특별한 '나'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학은 '어떤 어떤 곳'이라는 틀에 갇히기 쉬운 곳 중 하나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수, 교직원, 학생, 재단, 동문 등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가 틀을 깨기 어려운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집단 착시(錯視)와 이제껏 해오던 식이 앞으로 통할 거라는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물이 됐던,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가 됐던 뛰쳐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뒤집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 온 뒤에 이것을 '유쾌한 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경과 자기 자신의 틀을 깨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이지요. 그렇게 하면 여러 변화가 따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자기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유쾌한 반란'의 요체입니다. 자기중심과 함께 자기만의 소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요.

자기다움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도,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 과정 과정에서의 용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이 가는 길을 따르거나 사회가 만든 틀에 순응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답'이 아닌 '자기 답', '자기다움'을 찾는 청년들을 길러내고 싶어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세 학기 짤 맞는 '파란학기'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과제를 설정하면 과목으로 만들어주고 스스로 부딪치면서 실천에 옮겨 학점을 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학기동안 100개 넘는 다양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회들은 해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호주뿐 아니라 파라과이, 그리스, 스웨덴, 슬로바키아까지 해외인턴 자리를 만들어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껏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련을 해봤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워싱턴 소재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까지 실험의 장을 넓혀보려 합니다.

자기다움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먼저 자기주체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의사결정과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을 만듭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결정을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의사결정부터 스스로 내리고 그 결과에 오롯이 책임지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통해 더 많이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람은 모두가 '지금' 행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생이지만 나중에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연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요. 그러나 어느 단계를 지나면 앞으로 올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내 안에 침전되어 가려왔던 작은 알갱이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람, 성취감, 자기계발, 자기 성숙, 또는 자기다움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던 저는 그게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맹 가리가 유서와 함께 남긴 그의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동안 즐거웠다. 안녕. 그리고 감사한다" 작가다운 멋진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새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인생을 리셋(reset)한 것을 본받자는 말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자기다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아주인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족(蛇足)을 하나 붙입니다. 에밀 아자르란 필명으로 로맹 가리가 쓴 '자기 앞에서의 생'은 지난 학기 '총장 책 릴레이'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돌려 읽고 있는 책 중의 한 권입니다. ●

불확실한 미래 맞서는 진짜 실력과 행복 결국 '남다른 나'에서 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나도, 집단적 착시와 착각도 뒤집는 '유쾌한 반란'을

순응과 정답 아닌 '자기만의 답' 찾는 아주의 청년 시절 되길



좋아하는 것을 갖고 닮으면 소신이 생긴다

국어사전에서 소신(所信)을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로 설명하고 있고 영어 단어로는 belief, conviction, opinion, view 등이 적절한 것 같다. 주류(主流, mainstream)의 생각 또는 신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생각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이 표현은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사용하는 듯하다.

'소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류를 비판하는 성격이 있어 당대에는 인정 받지 못하나 나중(후세)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사람의 소신과 실천이 후에 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를 받으면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의 소신을 따를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주류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후세대는 그 사람을 '선구자'라고 부른다. 성리학의 주류를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피력하고 실천하려 노력한 조선시대 실학파 학자들을 '소신 있는 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교수는 자기 나름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연구, 봉사가 대학 교수의 책무이고 특히 연구라 함은 그 일의 성격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자연히 연구에는 소신이 필요하다. 넓게 학문의 흐름을 바라보는 면에서, 또 세부적으로 자기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소신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신분의 위험 없이 맘껏 자기의 소신을 펼치고 피력할 수 있도록 태뉴어 제도(대학에서 교수의 종신재직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대학교수 직에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

소신... 기본적으로
주류 비판 성격 지녀

주변 피해 안가도록
반추하는 소신이 진짜 소신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고 대학도 내가 아주대학교에 부임한 2000년대 초와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이다. 1990년대만 해도 1년에 SCI 논문 한 두 편만 써도 훌륭한 교수로 인정 받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원활한 연구비 수주 및 승진을 위해 한 해에 써야 하는 SCI 논문 편수가 상당히 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영향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어찌 보면 10~20년 전의 교수는 자기 나름의 소신을 피력할 여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럴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

영향지수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주류(mainstream)의 연구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 주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자신의 소신을 세우고 묵묵히 독심 있게 실천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다. 그러할지라도, 교수(연구자)로서 은퇴하는 시점에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사회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가치를 창출하고, 또 후속 세대에 모범이 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할 듯싶다.

아주대학교는 교수로서 소신을 피력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주류를 선도하는 최상위급 대학의 교수만큼 생존(生存)을 위

특집 기고

소신이란 비판이자 반성이다

교수로서의 소신에 대하여

해 요구되는 분량이 많지 않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너무 열악하여 자기 소신을 피력할 여건이 안 되는 수준의 대학도 아니다. 잘 하면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펼쳐 새로운 주류의 선봉이 될 수도 있다.

아주대학교에 온 지 16년이 지났고 정년까지 앞으로 16년이 남았다. 아주대에서 교수(연구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되짚어 본다.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나름 일관성 있게 한 주제를 붙잡고 파고 든 것이 성공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SCI 논문만 추구하는 기존 주류에 비판적으로, SCI 논문에 이어 특허 및 기술이전까지 창출해 보겠다는 소신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 논문-특허-기술이전 모델은 교수 자신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주고, 졸업생의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여 국가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에 점차 활발히 반영되고 있다.

아주대 교수로서 SCI 논문만 가지고 소위 최상위 대학 교수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활발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논문-특허-기술이전의 성과를 창출하면 분명 경쟁력이 있다. 기술이전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영향지수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늘 내 소신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번민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주대 교수로서 영향지수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꼭 게재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으니 내 소신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한다. '소신이 있다'와 유사하나 다른 표현으로 '독특하다', '유별나다', '고집스럽다'라는 부

교수, 사회발전 위한 가치 창출
다음 세대 모범되는 소신 있어야

아주대, 교수로서의
소신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

정적인 표현이 있다. 자기 소신을 피력하면서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자기 소신의 결과가 주변(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돌아올 때 쓰는 표현인 것 같다. '소신 있는 사람'인지 '독특한 사람'인지 늘 비추어 보면서 살고자 한다. ●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소신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주관과 경험을 '소신'이라고까지 일컫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다. 독특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어른다운 어른'에게 당신의 소신을 들려주십사 청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내게 이 지면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어쩌면 '소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라'하는 뜻이 담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소신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곧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직무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 '타협' 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내가 지금의 일을 해온 것도 벌써 여덟 번째 해가 됐다. 면접자가 되기 보다 면접관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진 지 금이지만, 내게도 잊지 못하는 면접의 경험이 있다.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 채용면접에서 내가 받았던 첫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해가 바뀔 때 마다 스스로에게 되물곤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당신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 생각해보기도 전에 내 입에선 이미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이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다. 합격은 했지만 이유를 말해 주지

특집 기고

'깡'이 필요해요!

툭아보는 사람의 소신 이야기

류평가하고 면접을 보는 것처럼,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훑어보고, 그들이 지닌 강점과 역량을 고려하여 기회를 주는 이러한 선발방식은 옳은 방향 중 하나라 생각한다. 반대로 합격자 선발에 있어 '점수'라는 계량화된 수치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비용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다. 액셀이라는 도구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 말이다. 반면 학생들의 면면을 훑어보고 합격자를 선발해내는 일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점이 다르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단계도 다르다. 이로 인한 성취와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태도 역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을 훑어보고, 좋은 점을 헤아려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하나 고민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학생은 어떤 모습이며, 나는 어떠한 것들에 중심을 두고 학생들을 훑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강원도 춘천 구곡폭포 앞에는 '꿈, 끼, 피, 강, 끈, 끈, 끈, 끈, 끈, 끈'이라는 글자를 적어둔 안내 표지판이 있다. 황토 오솔길과 시냇물을 벗 삼아 폭포에 이르면 꿈, 끼, 피 등 9가지 쌍 기역의 구곡魂(九曲魂)을 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건 수는 점수나 내신 등급이 아닌 9가지 쌍기역의 혼이 아닐까? 학생들뿐 아니라 내게 해당하는 바이기도 하다.

공정 · 신뢰 속에
이해 오가게 하는 일이
'선발'의 소신



입학사정관

수험생의 열정 · 노력은 물론
'스토리'까지 훑아봐야

'깡'의 고통이 약이 되는
습관 가져주길

는 많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본 첫 번째 합격 이유는, '솔직한 답변을 해서가 아니었을까 한다. 당시 나는 "전문가란 최소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은 일을 해야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요?" 라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 2년의 사정관으로 일한 뒤였지만, 그 정도의 시간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올해로 나는 입학사정관으로서 '10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 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 - 지금 나는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말 중에 '툭다, 툭아보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한다. '살살이,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뜻의 말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충분히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 좋다. 틈이 있는 곳을 모두 더듬어서 찾다라는 뜻과 가파른 곳을 올라가기 위해 매우 힘들게 더듬는다는 의미, 빈틈없이 살펴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in-depth라고 하니, 더욱 마음에 든다.

입학사정관으로서 나는, 학생 저마다의 노력과 삶이 담긴 기록(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서 각자가 지닌 강점과 역량을 훑어보고 있다. 수능점수, 내신등급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답을 더 잘 맞는 이가 누군지를 궁금해했던 예전과는 달린 모습일 아닐 수 없다. 성인 학습자를 선발할 때 서

'꿈(목표)'을 가지고 자신의 '끼(재능)'를 발휘하고, 각자가 가진 '색(색)'깔을 뽐내고 공유하며 자신만의 '꼴(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끈(네트워크)'이 되어 주는 것, 지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꼭(지혜)'을 잘 써보는 보는 것, '강(용기)'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말이다. 9가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때로는 '깡(실력)'도 필요한 것 같다. 넘어져 쓰러질 때는 고통이 크지만 지나고 나면, 약이 된다. 여기에 끝(마무리)'을 잘 해내는 습관을 갖는다면 각자 나름의 '꾼(전문가)'이 되지 않을까?

부디 입학사정관으로서 10년의 경력을 채우게 되는 때에는 첫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에 다른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열정과 노력을 쏟아낸 학생들의 면면을 정성껏 훑아보는 것 -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더불어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 역시 계속 내 앞에 남아있는 숙제 이리라. ●



길 만 큼 의 No. 1 이 있 다

특별 기고

포기와 타협의 폭 큰 사회에 소신은 없다

- 대한민국과 나의 소신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나는 내 소신(所信)대로 살기 어렵다.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밖에 없는 오늘날의 이 세계에서는, 어느 국가에 가도 내 소신과 그 국가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것이다.

내 직업은 '고등교육 노동자'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존재 의미는 바로 '자본을 위한 유순한 기능적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다. 대학 4년(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노동자가 될 청년은 교재를 잘 요약해 정해진 기한 내로 과제물을 내고, 교원의 말을 잘 듣고, 시간을 엄수하면서 수업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기능과 함께 직장의 위계적 규율을 익힌다. 즉 자본으로서 유용한 '인력'으로 훈련되는 거다. 교원인 나는 '인력'으로 노동시장에 팔려나갈 청년들에게 점수를 매겨 그들의 잠재적 고용가치를 표시해주고, 잠재적 고용주들은 그 점수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사줄지 안사줄지 결정한다. 즉 교원인 나도 '인력' 훈련과 노동 상품화의 연쇄 속에서 한 몫을 차지하는 셈이 된다. 나는 인간을 생산과 소비 과정의 나사로 만드는 자본주의를 진심으로 혐오한다. 그럼에도 주당 40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보면서 바로 그 자본제의 유지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소신대로 산다고 보기가 힘들다.

반자본주의적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국가에 가도 내 소신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그 포기와 타협의 폭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크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남북 대립 속에서 형성된 병영사회를 그 모태로 하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는 만큼 그렇다는 것이다. 국가의 레벨부터 그렇다. 나의 전공은 '코리아'학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코리아, 즉 남한 밖에 보지 못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한국 시민권 소유자로서 다른 코리아에 갈 허가를 받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고 무허가로 갔다 오면 그 다음 감옥에 가거나, 한국 국적과 남한으로의 입국을 포기해야 한다. 나는 종종 남한에 가서 자료수집과 각종의 활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만한 용기를 지금으로서는 가지지 못했기에 북한행을 포기하고 산다. 한쪽 코리아의 정부가 그 주민들에게 다른 쪽 코리아로의 여행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는 게 나의 소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동의 자유가 만인의 당연한 인권이라는 건 소신인데도, 그 소신을 스스로 죽여 방북을 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실 국가 수준의 권위주의는 사회의 다른 부문에 비해 그나마 덜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1987년 대항쟁 이후 국가는 형식적으로라도 제도적 민주주의의 일부 요소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국가에 비해 상당 수가 세습독재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훨씬 더 하다. '지식기업' 내지 '교육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은 기업 치고도 가장 문제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본다. 정규직 교원도, 비정규직 교원도 노조 조직률이 2% 정도 밖에 안되는 등 대학 지식노동자들은 거의 연대적 저항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장 착취를 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훨씬 더 연대적이며 투쟁적이다. 노동에비교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노동시장의 극단적 불안화에 따라서 거의 투지를 잃어 각자도생의 외로운 싸움터로 몰리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은 어떤 때에는 미국 남북 내전 이전 남부에서의 노예농장과 같은 면모를 보이게 됐다.

자본주의 체제 밖에
없어진 지구촌
어디서든 소신대로 살지 못해

한쪽 코리아에서
다른 쪽 코리아로의 여행규제는
'인권유린'이라는 소신도 죽어

사실상 교육 기업인 대학
기업으로 쳐도
문제 가장 많은 편

최근 언론들이 소개한 서울대 인문대학 "스캔노예" 사건을 기억하는가? 권력을 쥔 한 교원이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8만장 복사를 사적으로 시키는 등 비인간적 사역을 시켜주 서울대의 인권센터는 그 어떤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대학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서울대는 내가 재직하고 있는 오슬로대의 자매결연대학이기도 한다. 사실, 내가 연구 내지 대학 사무 차원에서 연결해야 하는 한국 여러 대학에서의 사회경제적 제(諸)관계는, 신자유주의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노예제 사회의 혼합을 방불케 한다. 곳곳에서 개별화된 예측 관계 속에서 잔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들의 그림자가 보인다. 나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내 직무를 규정대로 수행하고, 노예주들에게 "당신은 노예주"라고 소신대로 발언하지 못하면서 산다. 소신대로 산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개인관계에 있어서 소신을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입장'에 달려 있다. 내부자로서는, 중국 전설 속의 살신성인한 성안군자 백이숙제(伯夷叔齊)처럼 스스로 굶어죽을, 즉 소신을 위해 스스로를 완전하게 희생시킬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질 분자", 즉 남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배제하는, 그리고 그 어떤 소신과도 무관한 위계서열적이고 사적인 네트워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의(矣)자를 잘못 썼다고 한 중국 신문에의 기고를 스스로 취소할 정도로 타협할 줄 몰랐던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군자들을 관용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단재 선생이 살아 숨쉬 수 있었던 개화기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자사들의 사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없어졌다.

1990년대 말 한국 사회의 내부자로 살았을 때에, 나도 내 소신을 거의 살리지 못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권력 관계 속에서의 타협보다도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강제된 타협이었다. 내가 잘 먹지 못하는 술에 대한 강권은 그나마 물리칠 수 있었지만, 가깝게 지내온 여르신의 한강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강요 같은 것은 잘 물리치지 못했다. 태생적 음치로 부를 능력도, 마음도 없는데 말이다.

외부자 즉 생활기반이 대한민국 경계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소신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은 아마도 더 쉬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내면화된 강박이 있어서, 외부자가 돼도 소신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끔 윤이 따라줄 때나 소신을 지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약 5년 전 당시의 대통령 이명박이 노르웨이 방문 차원에서 오슬로대학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다행히 학과 회의가 그의 "특강"과 겹쳐져서 그 "특강"에 안가도 되는 상황이 됐다. 4대강 죽이기 등 각종의 망국적 폭정을 해온 사람이기에 나는 그를 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만약 회의가 없었다면 대통령 특강에 가야 한다는 노르웨이 주재 한국 공관 등 외부의 압박에 과연 맞설 수 있었겠는가 싶다. "예절"에 대한 나의 강박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과 다르며 차라리 그 정반대에 해당된다고 나 스스로 생각한다. 나로서는 차라리 친일로 돌아선 욕당 최남선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인사하지 않고 "욕당이 죽었다!"라고 한 마디 내뱉기만 했던 만해 한용운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테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



길은 사람들의 소질만큼 있어야 한다



박노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국동사학과(조선사 전공)에서 공부했다. 러시아 이름은 블라디미르 티흐노프. 고등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북한 영화 <춘향전>을 보고 난 뒤 '코리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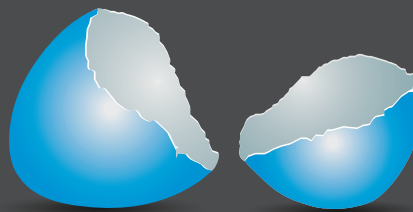
그가 고려대학교에서 석 달의 시간을 보내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 있었다. 이후 여행 가이드나 통역, 번역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1996년 모스크바대학에서 고대 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약 3년 간 경희대학교에서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로 일하다 2000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동방언어 및 문화연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다. 2001년 한국으로 귀화, 스승인 미하일 박 교수의 성을 따르고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은 '노자(露子)'로 지었다. 박노자는 한국사와 동양철학·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풍토를 신랄하게 비판해 대 표적 진보논객으로 손꼽힌다. 저서로 <비굴의 시대>, <당신을 위한 국가 는 없다>, <가꾸어 보는 고대사>, <당신들의 대한민국 1,2>, <박노자의 만감일기>, <하얀 가면의 제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어디에서도, 소신을 다 살리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데 사회와의 타협이 강요될 때에, 적어도 그런 타협이 불가피해도 꼭 바람직하지만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앞으로 타협을 덜 하면서 살려는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재나 만해처럼 비타협적으로 살면 감옥에서 죽게 된다 해도 편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반대로 소신을 포기한, 나를 포함한 우리 다수의 노예적 삶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임종의 순간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소신을 살리면서 사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아닐까 싶다. 병리적인 사회에서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

용기는 눈물 속에 있고 도전은 눈빛 속에 있다

가슴속 깊은 곳의 꿈—
기꺼이 쏟을 눈물과 땀—
그것들을 향해 달릴 때가 다가옵니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세상을 더 새롭고 가치 있게—
함께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파란색(개) : 아주대의 상징색인 '아주분문'에서 파와 알(알)을 '개'의 '파란(藍色)'과 '이문'통해서 파에 신전한 '파란(藍色)'을 알리기자는 뜻을 담은 도전하기

유쾌한 반란
당신만의 세계를, 더 좋은 세상을—

아주대학교
www.ajou.ac.kr 031-219-3981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 배움의 재미가 없다"
AFTER YOU
배움의 재미

사회적이동성의 실현,
어려운 학무 후생의
수준 높은 해외연수 제공,
100% 사회 인사의
전성으로 거듭 마련

Global Internship

인턴십의 국제화,
BMW, KOTRA,
OKTA, KCP, H마트 등
글로벌기업 장단기
취·창업형 인턴십

Cheer Up Change Up

취·창업 전담 책임사모팀

찾을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
졸업이후 진로를
학교가 놓치지
강동책임으로 개척

2017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아주대역까지 29분!

특집 인터뷰

측은지심이 나의 소신이다

- '적당한 정의'란 없다



변호사



강연을 비롯해 여러 '직접 학문'에도 열심인 박노자 교수. 관점에 따라 그는 '과격'하다. 그러나 한국 담론의 지나친 '기술어진 운동장'의 지적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사각은 그 경도를 줄여주는 '건강한 다양성'으로 늘 의미 깊어 보인다.



박준영은 '재심 전문 변호사'다. 돈도 명예도 함께 나서줄 들은 한 톨배도 없는 '세상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바로 그의 고객이다. 경찰과 검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이 그들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여러 사건을 변호사 박준영이 다시 맡았고 결국 뒤집어 결백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사회 정의를 향한 치열하고도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박 변호사 개인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이 바로 시민·선한 연대의 힘이다. 그의 이야기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변호사>라는 제목의 스토리 편집을 통해 알려지면서 1만8000여건, 5억6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우리들의 변호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이슬/브랜드전략실

● 홀로 여러 건의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최근 2권의 책을 펴냈고 강연과 방송에도 부지런히 임하고 있다. 감당하기 벅차지는 않은지?

'공의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영리 사건을 맡기는 어려워졌다. 흔하디 흔한 일인 사건과 공의 사건을 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송에서 한쪽에 명백하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의뢰인의 유·불리를 따지고 소송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좋은 일 했다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영화까지 나온 상황이 아닌가. 누구 한 분이라도 실망 시키고 싶지가 않다.

책과 강연이 주요 수입원이 됐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리고 일을 제때 못하는 게 스트레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행복하다. 본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느 모임을 가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언 기회를 많이 얻고 싶어하지 않나. 내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다는 것, 행운이다.

●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10대 시절을 방황하며 보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오늘날의 박준영을 만들었다고 보나?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어려운 사건들에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별로 없다.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도.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코스요리 먹고 좋은 술도 좀 마시고 하나까 이전의 내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게 됐다.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고 부장직으로 장가도 가고 싶어졌다. 억울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계속 만나게 됐기에 가능했다. 수원 노숙 소녀 사건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순간 자체가 '타닝 포인트'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년 이상 이 사건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상담자원센터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변화할 수 있었던 거다. 순간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하는 사례는 드물다. 계속 그런 상황 속에 놓여야 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1학기만에 중퇴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내리

‘개천의 용’들
어려운 사람 위해
일하는 이 적어
나도 사시 합격 후
코스요리 찾는 속물 돼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긍정적 · 구체적 상상하고
‘이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는
누가 뭐래도 지켜가야

게 된 결정인가?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 비아냥도 많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감히 사법시험을 공부해?' 라고 하셨다. 중학교등학교 나와 대학을 1학기만 다닌 사람이 사법시험을 공부한다는 게 다른 이들 눈에는 참 엉뚱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시험에 도전한 것은 '긍정의 힘' 덕분이었다. 중졸 학력으로 장사를 했던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 내 태몽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달리던 가자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또 손등의 뿔줄이 말발굽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다. 본인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서도 내 미래에 대해 늘 밝게 생각하셨던 거다.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주던 내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은 어렵지만 나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 공부하는 순간순간 힘이 들 때는 상상을 많이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상상, 멀리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과 그 배에서 내리는 나의 표정 그리고 손을 흔드는 시점 같은 구체적 상상을 했다. 그게 참 큰 힘이 됐다.

● 스토리 편집에 함께 한 박상규 기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 박 변호사의 변론은 거기서 출발하고, 다시 거기로 향한다. 박 변호사는 그걸로 싸웠고, 그걸로 이겼다'라고 썼다. 그렇게 연결 같은 자세로 의뢰인을 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을 본다. 일례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최태열 씨 부모님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장애를 가진 최 씨 부모님이 아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이 분들에게 이렇게나 소중한 자식인데'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나. 가끔씩 이렇게도 묻는다. '엄마 모습 중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엄마가 굵은 손으로 빨래 하는 모습이 기억 난다고 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점,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재심 사건들에 열일 제쳐놓고 뛰어들이기 쉽지 않다. 측은지심이 가장 큰 힘이다. 남의 불행에 공감하는 데 어떻게 그들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있겠나.

재심청구서와 같은 각종 서류들을 그때 그때 챙겨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 그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지금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고, 또 그 과정을 알아야 변호인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편안히 계세요라고 한 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건 당사자가 몰라줘버리면 관계는 흐트러진다. 소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 평탄한 보통의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소신이 변호사 박준영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 그 대가를 생각한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만큼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투입한 자원이 아깝지 않다. 만약 사법고시에 합격한 게 오롯이 스스로의 노력과 고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 성과가 절대적인 나만의 것인데, 남에게 주기가 얼마나 아깝겠나. 그게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꽤 좋은 머리와 노력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나의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사람에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사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한데 이 억울한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그것을 떠올리며 동력으로 삼아 일한다. 이익이라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누가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할 때가 있지 않나. 스스로의 미를 찾아가면서 일하는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례와 경험을 통해 그렇게 판단한 바가 있다면 믿고 나간다. 대세에 편승해 내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다. 관련된 논쟁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내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다. 또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소신을 발전시켜 가기도 한다. 소신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다른 이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편이다.

● 맡았던 재심 사건들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은 분들도 있고, 사회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의 감당하기 힘들만큼 부담도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가끔 잔인하다 싶은 정도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페이스북에 이런 분들에게 대해 적기도 한다. 얼마 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실까 싶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봐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내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분들의 사건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변호사 개개인이 나서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마저 없다면 누가 이 일에 뛰어들겠는가?

재심사건들에 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유력한 증인을 밝혀내도,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알아내도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각종 서류도 마찬가지다. 보통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공적 권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소신을 가지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재심 사건에 매달리면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정말 힘들었다. 가족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와 무기력이 찾아왔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흐를 때도 많았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게 되는데,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 그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치켜 나가 떨어지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평범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자빠질뻔했던 나를 시민들이 지원해줬고 다시 일으켜줬다. 스토리 편집은 스스로를 절벽에 내던지는 각오로 임했던 일이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와중, 또 휴가철이었던 8월에 스토리 편집이 시작됐는데, 3일만에 1억원이 들어왔다. 우리 사회가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은 선택으로 남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의 속물적 속성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 하는 것도 내가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알리고 싶어서다.

좋은 머리
노력하는 유전자
절대 개인의 것만 아냐

내 '경제적 공포'의 눈물
시민들이 닦아 줘
그렇게 소신, 용기
돕는 세상 되길

우리 사회 '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
변호사들의 '배려'와
'공적 권한' 절실



박준영은...

완도 옆의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문체 청소년이 됐다. 집을 나와 새끼 웨이터, 분식집 배달, 식당 서빙 등을 했다. 남들보다 1년 늦게 중학교등학교에 들어갔고 겨우 졸업했다. 군대에서 만난 배병장을 따라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24살에 시작한 고시 공부는 29살이던 2002년 결실을 맺었다. 취직도 사건 수입도 쉽지 않았기에 국선 변호를 닦치는 대로 맡았다. '수원 노숙 소녀 사건'에도 그렇게 뛰어 들었다. 이 사건을 해결해내고 제대로 한번 잘 나가보고 싶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랬던 그가 억울한 아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며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됐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변호사, 우리들의 변호사로 살아가고자 한다.

●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금 길게 보자. 그리고 도전하자'라고 말해주고 싶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가 남는다. 나만 해도 고등학교 때 특하면 가출하고 사람을 때리고 싸움을 일삼았다. 그런데 29살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은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한 번뿐인 인생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주변을 위해 가치 있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인간이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는 쉽게 뛰어들게 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과장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우리만 살다 가는 세상은 아니지 않나. 고작 하나의 점만한 성과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역할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나?' 이야기 해 봐 줄어줄게라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해결도 쉽지 않다. 나 역시도 그랬는데, 어릴 적 했던 방황과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니 별 게 아닌 게 된다는 걸 느꼈다. 너무 크고 무거웠던 짐인데, 그 시기를 넘기고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열어졌다. ●



이렇게... 하면 후회 남더라며 자신과 주변 동시에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소신으로 살아 주길 당부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아주인사이트> 취재팀과 기념 웃음을 지어주었다.



꿈 이 있 는 사 람 은 때 로 다 니 지 않 는 다



우리가 꿈꾸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의 대학은 사회의 각종 병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각자도생에 급급해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주인사이트>는 구형일(전자공학과), 김태봉(경제학과), 정승호(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대화를 통해 대학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고민해봤다.

정리: 이슬 / 브랜드전략실

● 본인이 걸어온 길을 '소신'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다면?

정승호: 특별한 소신 보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몇 분야는 인기가 많고 경쟁도 심했다. 살펴보니 '화학 공정 안전' 쪽에 일자리가 많았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관련 분야에 취업했고 4년 반 일하다가 한국에 왔다.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들었는데, 꿈이 확고한 사람이 많지 않다. 나도 점수 맞춰 대학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중심을 찾아갔고 유학 가서 답을 얻었다. 소위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분야를 찾아갔다. 친구들 중 이른바 '대세'를 따라간 경우가 많은데, 많이들 '박 터지게' 살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도 많은 것이기에, 레드오션 아니라 '블랙오션'이 될 분야도 많은 것이다. 이런 분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을 넓게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한다. 자기 꿈을 찾아서, 그리고 스스로 강점을 가진 분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구형일: 의자에 오래 앉아있고 날짜 어기지 않고 숙제를 하고 인생을 개척해온 타입이라기 보다 눈앞의 목표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박사후과정에 있을 때 논문을 쓰면서 구직도 하고 있었는데, 한 외국계 기업 연구소에 면접을 봤다. 합격했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연구소장께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말쑥의 요지는-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저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설득됐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의외로 비쳐지는 결정을 내렸다. 내가 너무 좁은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뛰어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김태봉: 소신대로 살아왔느냐고 물으면 전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데,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 97학번인데, 학부 때 PC방에서 살았다. 경쟁 대학과의 게임 대항전에 학교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좋아했고 열심히 했다. 의외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컴퓨터에 대한 익숙함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도움이 됐다. 연구에 쓰는 코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박사 논문도 통계 분석의 알고리즘 게

비판 수용하는 성숙사회가 소신의 인재 키운다

특집 대담

선에 대한 내용으로 썼다.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연구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경험이 버려지지는 않는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자산이 된다.

●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이자 연구자로서는 어떤가? 강단에 서기 전 가졌던 소신이 실제 삶에서 구현되고 있는 지?

구형일: 강단에 선지 얼마 안되었을 때, 재미난 학생을 만났다. 같은 수업을 2개반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수업을 모두 들었다. 9시 수업에 수강신청을 해놓고 그 시간에는 자는데, 10시 반 수업은 열심히 듣는다. 아침 잠이 많고, 뒤 수업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 눈앞의 목표에 충실하고 당장 학점을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이라면 문제다. 그런데 학생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런 조언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나?'라고 물으면 할말이 없기도 하다.

김태봉: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다.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소신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가기가 쉽지 않다. 학자로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아등바등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따라가기도 급급하다. 지금까지 낸 논문이나 보고서 중 가장 소신을 가지고 썼던,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한국연구개발원(KDI)에서 일할 때 썼던 보고서인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를 펴낸 뒤 한달 동안 기자들에게 시달렸다. 'KDI, 한국은행 정면 비판'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전적으로 연구소의 펠로우십 문화 덕분이었다. 선배들과 머리를 맞대고 쓴 보고서였기에, 한국은행이라는 기관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정승호: 일단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열정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행복하다. 교수로 오기 전에는 연구비,

“
사고든 성과든 공유하고
명백해져야 되며,
개인은 전문성 높여야
소신 살아요.”

“AFTER YOU”, ‘파란학기제’ 등
아주대 변화탄력성 높아

적극 참여해보길
좋아함이 확인되면
‘올인’하세요!

”



즉 리서치 펀드에 대해 잘 몰랐다. 대학에 와서 연구비를 따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됐다. 요즘 깨어있는 시간 중 절반 정도는 연구비 수주에 투자하는 것 같다. 연구실에 있을 새가 없다.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러 다니고 수 차례 탈락해 보기도, 또 성공해 보기도 했다. 연구비가 충분해야 더 좋은 장비를 들고, 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안전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한 화학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일인데도 그랬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고, 또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명명백백 밝혀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고에 대해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갔는데, 이러한 사고와 관련해 조사나 비판을 할 때에는 특하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비로소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구형일: 2년 전 온라인상에서 드레스 사진을 두고 색깔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누구는 파란색과 검정색이 보인다고 하고, 누구는 흰색과 금색이 보인다고들 했다. 같은 옷을 두고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예로 회사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리뷰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있다. 이 토론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내 코드를 비판하면 나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도록,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된다. 하나하나 한 이야기만 하다가 토론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발전도 없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던 화 내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넓은 의미에서 이런 문화의 조성이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다.

●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정승호: 아주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변화에 탄력성이 있는

“
사회 상황 점점 더 어려워져
젊은이들 '소신' 아닌
'저위험' 택하죠.”

학점은 종이쪽에 불과
좋은 수업은 평생 가슴에 남아
그런 강의 열심히 준비할 테니
꺼리지 말고 수강해주길

”

편이다. 학과를 새로 만드는 것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빨리 진행되는 편이다. 본인이 속한 조직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AFTER YOU 프로그램"을 포함해 겹겹이 마련되어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과 파란학기에도 적극 참여해보길 바란다. 이것저것해보다 보면 잘 하는 것을 찾게 되고, 또 잘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 일 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안전' 분야를 택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적성에 아주 잘 맞는 분야인 것 같다. 자부심도 든다.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올인(all in)' 하길 바란다.

구형일: 지난 학기에 파란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맡았다. 학생도 나도 처음이었기에,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할 만한 좋은 기회다. 얼마 전 한 학생이 파란학기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하기에,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웃음). 스스로 해보고 싶은 바를 잘 정리해서 들고 찾아온다면, 나쁜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리라 본다. 그 정도의 용기와 소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태봉: 학점은 종이 조각리에 불과하지만 좋은 수업은 평생 남는다. <경제전망과 동향분석>이라는 수업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을 설득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학 수업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다. 때문에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해석해보고 경제이론에 적용하거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 이 수업을 개설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꺼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나보다 노랑진의 학원강사들이 나를 지모른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질문' 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 ●

“
이해는 되지만
학점 위주 공부는 소모적
하고 싶은 것 '정리'할 줄 아는
노력, 용기 있어야 소신돼

감정 건어낸 토론 훈련돼야
소신도, 발전도 생기더군요

”





아주 젊은 소신 1

“실패한 소신도 알아주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차수현(기계공학과 11)



창업을 꿈꾸는 아주대학교 학생 16명이 '글로벌 창업의 메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아주대가 추진하는 동계 글로벌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2016 글로벌 스타트업 워크숍'이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개최된 것. 참가자들은 스탠퍼드대학, UC버클리대학 등 인근 대학 캠퍼스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방문해 생생한 경험을 쌓고 돌아왔다. 워크숍 참가자 2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 어봤다.

첫 일정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열풍을 이끈 가장 중요한 대학, 스탠퍼드대학교를 탐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스탠퍼드 구 성원들에게는 '토론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있음을 느꼈다. 건물 마다 스티디룸이 많았고 사방에 화이트보드가 붙어있었다. 그 리고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며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빼곡했다. 이 대학에서 Mobil Iron이라는 그룹의 창업자인 밥 텡커(Bob Tinker)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클래스를 들을 기회 가 있었다. 좌석을 채우고도 모자라 학생들이 겹겹이 서 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열정적인 강사,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 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을 보며 왜 이 대학이 '명 문 대학'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둘째 날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해외 창업 지원 기관인 글로벌 혁신센터(KIC)에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들었

다. 이현수 KIC 센터장은 “한국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 이템' 위주로 창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며 “그에 반해 미국 실리 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지적 했다. 또 20대의 창업을 적극 격려하며 실리콘밸리의 유행어인 “30살 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Do not trust anyone over 30)”를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인근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대 선배들 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팀을 나누어 인텔, 애플, 에릭슨, 링 크드인 중 1곳씩을 방문했다. 나는 애플에서 일하는 송영환 선 배(전자공학과 졸업)를 만났다. 애플 직원들은 총 7개 건물로 이루어진 캠퍼스 형태의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다. 송 선배는 대학원에 진학, 보다 깊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쌓는 것이 해외 취업에도 유리하다는 조언을 주었다.

구글 본사를 방문할 기회도 주어졌다. 구글에 다니고 있는 강



전형 선배(정보컴퓨터공학과 졸업)가 우리를 안내해줬다. 구 글의 분위기는 자유롭게 혁신적이었다. 업무 시간이 따로 정해 져 있지 않으며 꼭 자리에 앉아서 일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디 어를 복도 양 옆의 화이트 보드에 써 내려가고, 본인들이 원하 는 프로젝트를 직접 골라 진행한다. 일이 아니라 놀이처럼 느 껴질 정도였다.

셋째 날에는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서로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의 아 이템이 훌륭했고 시장 조사 역시 빈틈이 없었다. 이후 UC버클 리와 에어비앤비를 방문했고 마지막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에 대한 것 이었다. 세미나 중 조를 짜서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 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함께 참석한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 적으로 발표된 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와의 차 이를 느낀 부분이었다.

돌아오기 직전 나는 테슬라 모터스를 방문해 전기차 '모델S'를 타봤다. 당시 국내에는 아직 테슬라 차량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기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젊음과 열정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찾았다. ●

➡ Interview

● **본인의 소신을 한 마디로?** 즐기는 삶을 살자다. 머리 좋 은 사람은 노력을 할 사람이 아닐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 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도 한다. 이 말에 동의한다. 단, 목표를 갖고 즐기려 한다. 때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걱정도 되고 방 해물도 만날 수 있지만, 그 너머에는 '즐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 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다.

● **소신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하여.**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장애물이다. 실패해 본 경험이 큰 자산이 되 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데 실패한 2인자를 인 정해주지 않는다. 2인자, 또 실패한 사람은 충분히 훌륭하다. 아 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면 정말 그렇다. 2인자 가 1인자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실패해 본 이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주변의 걱정

과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

● **본인의 의견,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냐?** 이번엔 미 국에 가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이었다. 거침없이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누 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사소한 질문이더라도 이 질문을 함으 로써 다른 학생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가거나 중요한 부분 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로에 대한 감사 와 존중이 깔려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한국 대학의 수업 장면은 다르다. 뻔하 아는 것, 쉬운 것을 질문하면 '한심하다' 식의 반응 이 나온다. 비단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 각을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 이 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즐겁게 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을 꿈꾼다. 여러 장애물을 만나겠지만, 그것들을 넘어 계속 걸어 나가고 싶다. 또 그 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 고 싶다. 아주대에 들어온 후배들에게는,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책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익히라고 조언하고 싶다. 마음껏 뛰어 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그 경험과 상처들이 우리 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Interview ➡

●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아이템?**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기기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연히 청각장 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그분들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보청기뿐임을, 그리고 그나마 도 역할이 너무 미미함을 알게 됐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어 창업으로까지 연결됐다. 'Happy new ear'라는 이름으로 진 동이나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해 소리를 촉각화 해주는 솔루션 을 개발하고 있다.

● **요즘 고민은?** 휴학하고 첫해에 많이 힘들었다. 주변에서 걱 정이 많았다. 우리의 목소리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결정했다. '잘 모르면서 혼수를 두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 직접 겪고 고 민해 본 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일정 수준의 반 열에 오른 창업 선배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들 한



다. 쪽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소신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촌동생이 있다. 만날 때마다 안 타까워서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물으면 '없다고 하는데, 그 이 유는 '해본 게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학업에 만 몰두하고 다른 경험을 쌓는 것을 도외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다. 뭘 하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 나도 처음부터 창 업에 대한 소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이 런 자연 경험을 하고 두루 보고 듣다 보니,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 을 찾았을 뿐이다.

●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소신을 봤나?**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예전부터 '사업 실패=폐가망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지 않나.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누구나 '나도 한번 창업해볼까?'하 는 생각을 들게 한다. 곳곳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 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 같은 풋내기들의 설익은 아이디어도 귀 기 울여 들어준다.

●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스스로 좋아하 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삶이리라. 40세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일' 가능성 이 높다. 낯설고 힘들고 두려운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냥 저질 러 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부터 산호세까지의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부 른다. 예전에는 반도체 산업이 활발했지만 현재는 IT산업이 중 심을 이루고 있고 또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역이다. 총 5일의 워크숍 일정은 대략 3일의 창업 교육 및 탐방 활동, 2일의 미션 수행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스탠퍼드대학에서 유명 기업가 밥 텡커(Bob Tinker)의 '기업가 정신' 강의가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열정적인 강연이 이어졌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성공적인 CEO의 핵심 요인은 바로 '자기 인식'이다. CEO의 역 할은 자기 스스로는 물론 기업 전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회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CEO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팀원이고 이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CEO의 자 기 인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20년이 넘도록 기업가로 살

아주 젊은 소신 2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건 해본 게 없다는 거지요!”

조정훈(화학공학과 11)



아온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명문 대학 스탠퍼드에서는, 학생들의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끊임없이 기업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씽킹과 같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에 흥미가 생겨나도록 돕고 있었다. 실 리콘밸리 현장에서 느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미국 대학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다. 창업 생태계에 맞는 교육 및 지원 방식 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글로벌 검색엔진 구글의 본사에 방문했는데, 직접 두 논 으로 본 구글의 근무환경은 대단히 놀라웠다. 사무실, 회의실, 휴식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경계가 매우 모호했고, 어디서든 네트워킹하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 다. 또 직원들이 자기 할 일을 직접 찾아 일을 하는 능동적인 시 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요 업무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를 맡 고 있지만,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라는 명성은 이러한 사내 분위기에서 나온 창의성과 능동성이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숙박업 분야 대기업이 되 어버린 에어비앤비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일 종의 숙박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따라서 손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라고 한다. 실제 근무환경 을 살펴보면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회사 벽에 붙은 큰 액자에 사람들의 얼굴이 게시되어 있었 는데, 이들은 모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 을 공유하고 있는 집 주인들의 얼굴이었다. 회의실에는 에어비 앤비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전통적인 방 구조물 혹은 분 위기를 똑같이 재현해 놓았다. 근무 환경뿐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나 분위기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실제로 CEO가 직원들 에게 그러한 태도를 주문한다고 한다. 스타트업에서 명쾌한 아 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느꼈다.

나를 꽤 일정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잡 혀있었다. 새로운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고 민하고 또 시장조사를 탄탄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이제 바로 실리콘밸리의 창업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이번 미국 글로벌 워크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 뻔뻔한 일정으로 몸은 지쳤지만,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아 마음은 더 확 찬 느낌이다. 창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 하고 경험하며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





소 신 지 키 는 사 람 소 신 지 키 는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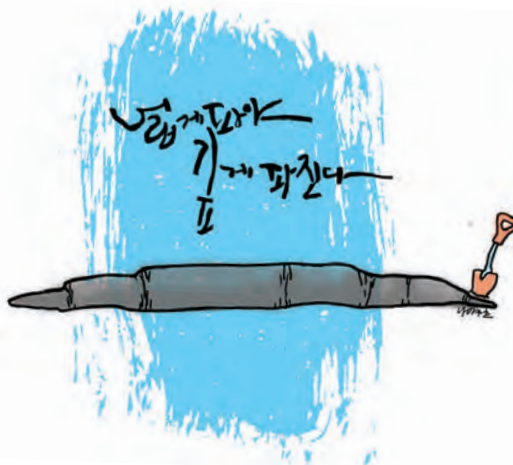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의 고민- 소신이 숨 쉬고 있어 더욱 소중합니다.”

<아주인사이트>가 지난 두 달 간 아주인의 소신 관련 고민을 접수했다. 적성과 진로, 현실과 꿈 사이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담긴 이야기들이었다. <아주인사이트> 편집실에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고민해봤다. 해결책을 가장한 '공감'과 '위로'의 말이다.

특집 카운셀링

Q 전공 공부와 친구들과의 교류 사이에서 소신이 안습니다.

17학년 신입생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학문을 택해 입학했습니다. 1학년이기에 기초이학을 이수해야 합니다만 만족하지 못하고, 교수님들께 말씀 드리고 전공 몇 과목을 더 청강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배우니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더 많은 걸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래도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합니다. 할 게 많아져 힘든 건 괜찮습니다. 별종 소리 들어가며 전공 과목 추가 청강이라는 일종의 '소신 계획'을 밀어붙일 때 이미 각오는 했으니까요. 문제는 학과 동기들입니다. 공강 시간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대화할 때, 저는 선배들 틈에 끼어 수강 중이거나 스스로 동기들과의 시간을 제한하는 셈이지요. 이렇다 '야씨(아웃사이다)'의 길로만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결린 정식 수강이 되면, 지금처럼 즐겁게 공부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기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이 깊어집니다. 공부만 하려 대학에 온 건 아닌데 말이지요. 소신 있게 선택한 전공 공부, 동기들과의 관계... 둘 다 잡을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만, 인류의 오랜 지식과 지혜의 결과로 체계화 된 곳입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1학년에 짜 놓은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과목을 통해 기본 소양을 쌓으면서, 소질을 찾고 소신을 가지고 매진하라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깊은 우물을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더욱이 '융합의 시대'에 너무 이른 한 우물 파기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초교부터 고교까지의 친구는 '허물없는 친구'입니다. 따지는 게 깊지 않고 싸우고도 다시 쉬 좋아하며, 서로를 과하게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 친구부터는 이해타산이 결부된 '친구'이자 동료를 사귀는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친구인가'를 가능해보며 사귀는 것이 바람직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넓게 사귀어 싸움 같은 논쟁도 하고, 마음도 다쳐 보고 해야 합니다. 3000명을 사귀고 3명만 깊게 남아도 성공입니다. 이 시대 '야씨'의 최고봉 중 하나는 잡스일 것입니다. 그는 '괴짜' 같은 진짜의 전범입니다. 그도 '진짜'가 다져진 소신에서 '괴짜'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같은 괴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Q 전공이 진출 희망분야와 맞지 않아요!

정보통신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앞으로 광고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해 보이는 분야이지요. 번듯한 광고 회사는 입사가 하늘의 별따기더군요.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차피 돈 벌며 살아가야 한다면, 좋아하는 일로써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업'이 인생의 최종목표도 아닐 뿐 더러,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어렵다고 멈추거나, 비광고계로 취업하여 그냥저냥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소신이 설만한 용기를 주세요.



A 광고계 같은 곳은 '소질'이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재치적 재능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핵심 직종은 정확하게 '글 쓰는 능력'이나 '그림을 아는 능력', 혹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봅니다. 또 다른 중요 직종은 '세상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소양'이거나, '대인 관계의 탁월성'이기도 합니다. 세부 직종을 잘 파악하시고, 걸맞은 나의 소질이나 적성을 꼭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계에선 이 능력을 오래, 높게 삽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약하다 낙인찍히면 짧게, 낮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광고 직접 연결 전공자는 5% 내외로 봅니다. 나머지는? 공대 포함 온갖 전공자이죠.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만, 또한 신입 채용 시 모든 과정 통과 후 최종 면접에서는 집요하게 '너의 생각은?'을 묻습니다. 달리 말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보다,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해석 능력, 생각 능력을 알고 싶어 하지요. 전공? 광고사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대기업·중소기업의 분류는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게다가 광고계는 작은 대행사를 가든, 프로덕션이나 부티크를 가든 '입소문'으로 통합니다. '한국 광고계는 손바닥'이라고들 합니다. 이 손바닥 같은 곳은 '능력'과 '태도'를 거의 입소문으로 추천, 파악해 이동하는 생태계입니다. 부티크 1년, 소규모 대행사 1년 만에 굴지의 대행사로 입성한 사례도 심심찮을 정도입니다. 한 원로급 광고인의 시니컬한 입을 빌면... "한국에 전공이 있긴 하나? 출신 대학이 전공이냐..."라는 현실이 있긴 합니다. 아주인이면 충분한 가치요.

Q '하고 싶은 일'의 소신이 흔들려요.

졸업을 앞섰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만 사회가 녹록지 않음이 점점 깊게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대학 내내 그 분야의 여러 준비를 해왔고, 관련 경험을 쌓으며 확신은 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직업으로써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이라는 현실의 벽이 있더군요. 부모님 등 주위의 시선도 부담입니다. 대기업에는 딱 맞지 않지만, 비슷한 직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속성상 일 자체에 대한 소신도 어려우리라 보입니다. 그나마 대기업엔 그 '비슷한 자리'도 턱없이 적고, 입사의 문은 좁아집니다. 이제 20대 후반, '하고 싶은 일'의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되는 나이겠지요. 갈피를 못 잡는 저의 '소신'을 어찌 할까요?



A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고함을 크게 환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에 비하면 행운아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글로벌 정보를 접하는 훌륭한 무대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리, '일인분'이 쉬 넘어서는 밥벌이 터라고만 여기기에는 아까운 경험들이 펼쳐지지요. 게다가 쟁쟁한 선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느끼고 배울 소양은 금쪽같은 수 있습니다. 큰물에서 큰일을 도모하며 이뤄내는 기회와 경험은 언제 어느 일에 도용의 자양분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조직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놓지 않고 마음 한 켠 깊게 담겨두기라 보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의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에 따른 변화를 큰 곳에서 관측하고 헤아려 가는 '유보'로도 좋을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요? 점점 더 강소기업은 각광 받게 될 겁니다. 당장의 위안은 좀 무시해 봅시다. 적은 수입은 힘겨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작게나마 개선시켜 가는 참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의 의지로서의 강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의 CEO나 리더는 대기업 등 해당 분야에서 노후나 입지를 쌓은 분이기 쉽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그에게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분인지는 최대한 파악하고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을 체득하고 대기업에 가보는 길은 의외로 넓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조직력·중소기업의 개인 역량을 접목시키는 창업도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평생 즐거운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Q 취업 되고 나니 치열함이 실종됐어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구직전쟁에 1년여 치열하게 임한 끝에 원하는 직장, 원하는 직무를 찾아 취업한 행운아입니다. 꿈꾸는 일을 하기 위해 매 순간을 치열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이 되고 나니 나타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빠르지 않은 나이 29세 입사인데, 벌써 이렇게 나타해지다니요. 취업 준비 중의 낙오 심리, 절망감도 극복했던 저인데 벌써 안주하는 듯한 제가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음의 각오나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A 지난 시절의 치열함이 회피심리라는 반작용에 맞닥뜨린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꽤 노력했고 능력이 있다 여겼는데, 다들 쟁쟁하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회피심리가 동하기 마련입니다. 둘째로는 무언가 잘 하려고 드는 데 막상 뜻대로 잘 안되니 자연스레 회피심리가 나서지요. 사회는 신참인데, 나이는 고참급이라는 점도 한 몫 보태는 것 같고요. 조직이든 스스로에게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회피하려 들고 종종 게으름으로 이어져 나타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존심' 문제라 보입니다. 위위를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 수도, 개인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자존심이란 녀석은 좀 외부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자존심에겐 남에게 잘 비춰지려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나르시시즘과 비교해 볼까요? 애는 자기가 강해 권력이나 금력을 만나면 자칫 외부로 그 힘을 휘두릅니다. 자존심은 상대적으로 싫어 자신감마저 거두어들이는 데 말이지요. 아무튼 '자존심'보다 '꿈'을 다시 새기거나 가지시길 권합니다. 진정한 꿈이란 자존심과 달리 내부지향성이 더 강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고, 지키려 들지요. 내면의 조건과 가치를 중시합니다. 외부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일이나 과정에 몰두 하게 합니다. 그런 '꿈'을 통해 신실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시도는 어떨까요.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 보세요. 밖으로 빠져나와 보면 안이새롭게 보이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절로 정리 정돈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일에 빠지고 빠지면 남은 것은 '소신'이 되어 분명해질 겁니다.

Q 사랑의 감정을 평소 소신이 막습니다.

부끄럽지만, 연애관에 대해 털어놓고자 합니다. 예전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하다 친해진 '여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자 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가 좀 멀어져서 많이 힘들어 했지요. 저와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고, 제 마음 속으로 그녀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애해보라는 조언'이 많습니 다. 그러나 아무리 원래의 둘 사이가 예전 같진 않다 해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 친구가 있는 여자 사람'에게 그러면 안된다... 라는 이성관계에 대한 소신 혹은 신조이지요. 아무래도 저는 감정의 이끌림 보다 이성적 판단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A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감정 우선의 세계입니다. '남자 친구가 있는 여자 사람'이 마음에 들어 온 것도 감정이 진격하자 이성이 잠시 숨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모든 외부 정보를 감각으로 인지하고, 호불호를 정하는 짧은 시간을 거친 후, 충성 혹은 거부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정이 절대적으로 많게 동원되면 아차!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겠지요. 감정은 행동을 낳고, 이성도 결론을 낳는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공부를 하며 지적 성숙을 꾀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그러면 안된다'는 신조는 가히 좌회불란(坐懷不亂)급 성정입니다. 결코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연애관은 인생관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에 어떤 이성을 만나겠다, '어떤 사랑을 하겠다'가 반영됩니다. 인생관이 뚜렷할수록 감정에 대한 이성의 대응은 단단해지겠지요. 이성이 과하면 감성의 세계가 풍요롭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랑은 그런 세계입니다. 100만 쌍에게 200만의 스토리가 있는 세계입니다. 각각의 삶의 철학이 나도 모르게 뚜렷이 배는 세계입니다. ●

[illegible][illegible]

* 이 페이지는 2017 신입생 전원의 이름과 출신고교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신을 응원하는 아주 알찬 프로그램

Ajou GREATIVE Programs



작은 배려, 큰 사회

“AFTERYOU” 글로벌 캠퍼스

어려운 환경 탓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각 4주씩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집중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도 가능하다. 미국 미시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워싱턴대학과 중국 북경이공대학, 상해교통대학으로 학생들을 파견한다. 참가 학생 선발 시 학점이나 영어 성적 같은 스펙보다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본다. 참가 신청 및 선발은 학기 중 진행된다. 올 여름 방학에는 120여명의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으로 파견되고, 인근 동남아·중앙아시아 소재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Inbound) AFTER YOU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2926)



세계로 가는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Program

글로벌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 BMW와 CKP(미국 최대 아시아계 회계법인), H&M(미주 최대 패션 마트) 뿐 아니라 KOITA,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같은 기관과 연계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한 단기 인턴십부터 최대 1년 간 근무하는 중장기 인턴십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파견 국가와 기업, 직무가 다채로워 참가자 선발도 상시로 진행된다.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등 22개국으로 100여명의 학생이 파견됐다. 경우에 따라 학점도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제회사입팀(031-219-3520)

세계가 우리의 캠퍼스

교환학생제

아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해외 대학에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수학하는 프로그램. 아주대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해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아주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식이나 식사는 상대 학교에 납부한다. 통상 5월 중순, 11월 중순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아주대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교환학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어학성적이 필요하다. 재학 중 정규 교환학생은 최대 3번까지 파견 가능하다. 선발은 학점과 어학성적 면접을 반영해 진행한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2926)

미국 명문대 학위를 동시에

복수학위제

아주대에서 일정 학점을 수료하고 상대 교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두 학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재 미국 2개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스톤브룩대학(SUNY-Stony Brook University)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 공과대학(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이 대상 학교다. 상대 학교에 등록금과 기숙비, 식비를 납부한다. 복수학위생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경우 본교 등록금은 장학처리(면제)되고 매 학기 학적유지비만 납부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해외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2926)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파란학기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본격 도입됐다.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프로그램을 설계·신청하거나 동아리 관련 교수·학교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학기가 끝난 직후 다음 학기 참가신청을 받고 계획서 심사를 통해 참가 여부

및 도전 학점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간 중에는 파란학기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컨설팅 시간도 마련된다. 도전 과목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A/B/F)로 진행된다. 이번 1학기에는 33개팀 145명이 파란학기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대학교육혁신원(031-219-3380)



취창업 진로 책임 서포터제

Cheer up Change up

아주대 학생이 첫 직장·직업을 찾을 때까지 학교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철학으로 시작한 취업지원 프로젝트.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진로설정 워크숍 ▲전공별 진로 멘토링을 통해 적성과 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취·창업과 관련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진로 상담, 입사지원서 첨삭, 모의 면접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및 채용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문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031-219-2042)

소신을 결실로

창업지원

<기술창업과 경영> <소프트웨어 창업론> <발명과 특허> <기업가 정신과 경영> 등의 정규 과목을 개설해두고 있다. 더불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 동아리 조직과 운영을 지원한다.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특허 출원, 경진대회 참가, 창업 전문기와의 교류도 지원한다. ▲아주창업캠프 ▲창업아카데미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킹 타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LINC 창업교육센터(031-219-1777)

현장이 캠퍼스다

현장실습 선실습 후강의제

실무능력을 쌓고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국내외 산업 현장실습 교육. 3~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16주 이상 참여해야 정규 학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방학기간에는 최소 4주(3학점), 최대 8주(6학점) 실습에 참여한 뒤 학점을 받는다. 학기 중 참가신청을 받으며 파견 가능 기업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2016년 1000명 이상이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아주대는 관교·광교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LINC 현장실습지원센터(031-219-1779/3937)



함께, 더 큰 하나로

One Korea

남북 접경도시 경기도의 대표 대학으로서 아주대는 통일과 통일 이후의 국가 발전을 준비해가고 있다. 통일과 관련한 교과목으로 <북한 사회의 이해>, <통일 한국의 이해>, <통일 후 북한에서 창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두고 있다. 통일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 청년 교류, 직업 박람회 등도 연다. 오는 4월에는 미래세대 통일탐사아이드벤처를 통해 중국·북한 접경지역 및 백두산을 탐방하며 5월에는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을 체험하는 행사도 연다.

문의: 아주통일연구소(031-219-3402)



Save Our Students

아주희망 SOS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스럽고 큰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 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지비팀 개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생활, 혹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학생지원팀(031-219-2035)

건강이 소신을 지킨다

보건진료소

응급약품이 필요하거나 건강 상 문제가 있을 때 이용 가능하다. 신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단한 진료를 받거나 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 대상 신체검사(연1회), 독감 예방접종(연1회)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학술답사, MT 등)에 한해 구급약품도 대여한다. 문의: 보건진료소(031-219-1596)

마음의 건강에서 소신이 나온다

학생상담센터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정신 건강을 위해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개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신학생회관 412호)에 신청할 수 있다. 1대1 상담은 주 1회, 각 50분 동안 실시한다. 집단 상담은 병학 중 진행되며 사전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집단 상담은 주 1~2회,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상담센터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를 비롯한 성격 관련 검사와 진로 및 학습 관련 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심리검사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학생상담센터(031-219-2191)

2007년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1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해법을 들고 나섰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서브프라임 해법'이라는 답안을 통해 비합리적인 거품이 터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고¹, 조지프 스타글리츠 교수는 "세계 경제의 자유낙하"라며 경제 시스템과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다².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해법,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과거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켄슨 교수는 세계 근현대사는 100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관찰한 바 있다³. 200년 전에는 18세기의 경제발전이 제1차 산업혁명으로 절정에 달한 가운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파국이 있었다. 100년 전에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가운데 1차 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았고 이는 대공황,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IT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향후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은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0년 세계에는 정보혁명, 기술혁명,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새로운 산업의 대두, 세계화 등이 폭풍처럼 몰아쳐왔다. 마치 IT에 기반해 정보·기술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셰일가스·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가 급성장하며 바이오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시장의 통합으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대 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정보혁명은 1840년대 상용화된 전신과 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명이 이끌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사람의 발이나 말을 통해 소통했지만 처음으로 '전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851년 유대계 독일인인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가 영불해협에 있는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런던과 파리 주식시장의 정보를 송신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됐다. 로이터는 지금까지도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1867년 인도 캘커타와 영국 런던이 전신으로 연결됐고, 1868년에는 대서양 전신이 연결돼 북미 시장과 유럽이 하나로 묶였다. 또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발명, 1897년 니콜라 테슬라의 무선전신 발명은 세계의 거리를 급속도로 좁혀주는 역할을 했다. 다른 산업에서도 혁신은 계속됐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기술은 100년 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용광로에서 용해된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불순물을 제거한 강철을 생산하는 베서머 공법이 1855년 개발되면서 기존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산업도 연이어 등장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옮겨야 할 물동량이 급증하자 등장한 것이 바로 기차다. 기차를 통해 물동량이 늘어나고, 인력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외에 전기, 라디오, 자동차, 항공,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분야가 새롭게 창조됐다. 세계화 역시 100년 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880년 이후 3000만명 이상의 유럽인이 미주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계 후손인 것은

교수칼럼 미래를 미리 봅시다! -100년 전 그리고 현재



구형건
금융공학과 교수

2차 대전→냉전→평화 유지...
최근 붕괴
세계 대전 직전과 현재 상황 매우 비슷



과잉 생산 · 유효 수요 부족
100년 전
위기 · 위험과 흡사

학생도, 기업도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 미리 볼 수 있는 법

당시 일어났던 대이주 때문이다. 또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콤투-슈발리 무역 조약에 따라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화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됐다. 세계의 금융산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과 시카고 대학교수 루이지 징갈레스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차 대전 직전의 금융 세계화 수준은 1999년에 이르렀을 때와 회복됐다고 한다⁴.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세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수립된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현재의 독일) 등 열강이 철저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미국의 대두 등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점차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19세기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을 계기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경제와 금융,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복합체는 성장하였으며, 군비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열강 사이의 정치적 균열 때문에 발생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진다. 연이어 2차 세계대전, 냉전체제까지 이어지면서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였던 체제가 붕괴하였다. 이는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선도 하에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였다. 생산력의 증가, 정보 혁명, 세계화 모두 유사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은 100년 전 미국의 부상과 비슷하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20세기 세계화의 특징이다. 마이클 켄슨 교수에 의하면 1980년까지 세계 경제의 중추를 이룩하였던 노동력은 미국, 유럽, 아시아 합하여 약 3억5000만 정도였다⁵.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회복하면서부터 신흥국에서 약 10억의 노동력이 세계 경제의 주류에 합류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력의 대폭적인 확대다. 위험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 생산의 위험이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도 과잉생산과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대공황이 왔는데, 이러한 위험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가치를 증가시킨다. 즉 새로운 기술과 지식, 그리고 실험의 가치가 커진다. 위기의 시대란 단순히 위험(risk)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opportunity)도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변혁과 위기의 시대에는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근시적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점,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갑자기 닥친다는 점 등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다. ●

* 이 글은 2014년 6월 삼성사장단에게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백 년 전 세계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상생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알프레드, pp. 300-307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Shiller, Robert, 2008,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Stiglitz, Joseph, 2010, 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W. W. Norton and Company.

3. Jensen, Michael, 1993,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he Journal of Finance, 48(3), 831-880.

4. R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2003, "The Great Reversals: the politic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1), 5-50.

5. Jensen, op. cit.

아주대 약학과 김홍표 교수가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20억년의 생명 진화 이야기를 풀어낸 책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을 펴냈다.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아주 위대하지만 소소한 생명 현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황으로 누비며 펼쳐 놓은 이 책에서 저자는 단세포 생명체가 다양한 종류의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기까지, '소화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먹고 사는 일상'을 통해 우리 몸 구조구석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여러 생명체들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도 곁들여 들려준다. 기초 생물학과 진화 생물학뿐 아니라 물리학과 영양학, 자질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해 폭넓게 공부해 온 과학 저술가 김홍표 교수를 만났다.

우리는 먹어야 산다.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김홍표 교수는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에서 소화는 이미 세포가 하나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단련되고 정교해진 결과, 소화기관이 최종적 형태인 '입이 있고 항문이 있는 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낸다. '통관' 소화기관이라는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실상 벌레와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통관을 가진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기나긴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소화기관의 발달이 혈관계(필요한 곳으로 음식물을 전달), 근육계(먹이를 획득하고 먹이감이 되는 것은 피함), 신경계, 호흡계 등의 순차적 발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음식물 안에 농축된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법의 개선 혹은 참신성이 궁극적으로 38개에 달하는 동물문의 진화를 이끌었다. 피터 워드의 <진화의 키, 산소 농도>에 따르면 캄브리아기 이전에 동물은 세 문에 불과했다."

"현대인의 식단이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화는 했지만 그에 비해 인간이 가진 장내 세균총은 아직 잡식성 대형 유인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중략)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탄소에 농축된 화학 에너지를 포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생명체가 만들지 못하는 물질을 얻는 것이다. 앞에 필수적이라고 이름이 붙는 영양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에서 김홍표 교수는 여러 생명체와 그들이 탄생하고 진화하며 살아온 세월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재치와 유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적절한 비유도 담겨있다. 짧고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쓰려고 노력한다는 김 교수는 독자의

세상에 올려 퍼질
아주인의 BOOK!

이 파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이시니...

20억년 생명의 진화 이야기·김홍표 저음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

방대한 생물학 전문분야
'시간' 개념 넣은 사유
재치와 유머로 흡인력 높게

평범한 것들을
평범치 않게 보게 하는 길잡이

“
기초과학은 철학...
저의 대중적 글쓰기
사명감이죠
”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의 사용도 가능한 줄였다. 전문 용어를 알 필요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과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더 공부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다. 최근에는 소소한 모임이나 강연을 통해 독자와 만날 기회도 많아졌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와 가장 단순한 단위로 쪼개진 영양소를 검색하는 장소이다. 공항의 검색대와 기능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소화물 속에 숨겨진 마약처럼 위를 무사 통과한 세균이나 독성물질은 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다.” “똥이 굵은 것은 충분히 곤대짓하며 의기양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장내 세균의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왕의 똥을 맛보는 내관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똥은 인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적 상징물이다.”

김홍표 교수는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다. 서울대 약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다. 천연물 화학과 헴(heme, 헤모글라빈의 구성성분) 생물학이 그의 전공 분야다. 20년 이상 실험실에서 생활하며 김 교수도 여느 교수들처럼 '논문'에 주력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실험을 할 만큼 하고,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싶을 즈음 접한 <기생충 제국>이라는 책이 그의 과학자로서의 지표를 바꿔놨다. 사람들이 기침을 하는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가 자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인간을 조종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 책의 주장이 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 것. 논문 아니면 소설만 읽던 그가 그날로 소설책을 내려놨다. 그리고 생물학 전 영역에 '시간'의 개념을 넣어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과학 저술가로서의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집필·번역을 마치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책만 서너 권·술의 진화 과정, 물의 구조, 구석기 환상 등 관심사도 다양하다.

“늑대는 왜 있을까? 언제부터 있었을까?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지 않게 보는 것, 그리고 그 기원을 탐구해 가는 것이 재미있다. 우리가 기존에 무작정 달달 외웠던 것들을 다시 보는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질문이 많이 생긴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에 대해 정작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책을 사서 보고 궁금증을 해결한다. 그런 책들 가운데에서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번역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생물학 제1법칙은 '머미아비 없는 자식은 없다'다. 더 넓게 보면,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현재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혹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엄청난 수의 생명체가 지구 행성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기초과학자로서 그의 철학이기도 하다. 나와 내 주변을 잘 살 피고 궁리하며 질문하고 탐구하는 삶· 그에게는 바닥의 개미와 지렁이도, 창 밖의 산수유와 진달래도 모두 사유의 대상이 된다.

“기초과학은 '돈이 안 된다'고 다들 기피한다. 성당 일변도의 정책만 펴고 그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 응용과학으로 대부분의 자원이 집중된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모기나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자연 과학자는 5년 동안 1편의 논문을 낸다. 학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 세포(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연구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줄기세포와 수정란을 연구해서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한다고들 한다. 이런 연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응용 연구 일변도로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기초 과학은 일종의 철학 같은 것이다. 내가 대중적 글쓰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기초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다.” ●

아주대 사학과 김봉철 교수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번역 출간했다. 기원전 5세기에 서술된 책 <역사>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인들의 삶, 그리고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세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있다. 고대 그리스사 전문가인 김 교수는 7년여 동안 <역사> 필사본들과 씨름하며 총 990쪽 분량의 책을 탄생시켰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저술한 <역사(Historia)>는 서양 최초의 역사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스 폴리스 중의 한 곳인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인 헤로도토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했다. 당시의 자연과 지리, 역사, 종교, 풍습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담았다. 더불어 헤로도토스는 신(神) 중심의 신화적 사유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해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사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의 인과 관계를 설명해낸 것. 이러한 기념비적 저술은 역사가로서의 집념과 열정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그리스와 이방인들의 전쟁에 대한 체계적 기록도 없었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당연히 '역사 서술'에 대한 개념과 전통이 확립되지 못했다. 이에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다양한 이야기와 자료를 모으기 위해 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를 전공한 김봉철 교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아득한 고대 그리스 세계를 탐사해온 나에게 안내서가 되어준 책”이라며 “고대 세계 전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자 보고”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라 제작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삼는 책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다.

김봉철 교수는 고대 그리스를 연구해온 학자다. 기원전 4세기 폴리스의 위기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스 아테네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공부했다. 김 교수에게 헤로도토스 <역사>의 한국어 번역 작업은 꼭 완수해야 할 학자적 책무였고 또 커다란 기쁨이었다. 출판사와 출간하기로 계약을 맺은 게 10년 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후 완성분을 내놓기까지는 꼬박 7년이 걸렸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원본은 현존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진 것들은 주로 중세 필사본들에 기댄 텍스트들이다. 김 교수는 헤로도토스의 그리스어 원문을 가급적 충실히 직역해 전달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 문장과 글자 하나하나가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김 교수는 “그저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여 독자와 소통할 지 고민이 많았다”며 “<역사>의 용어나 표현 중에는 해당 그리스어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 대체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대의 용어로 해석하면 고대의 실상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폴리스인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이나 조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 정치적 이유로 추방되어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외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역사>를 저술했다. 인간의 중요한 행적과 그 원인을 서술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진실에 닿고자 노력했다. 그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그리스인들에 비해 다문화 인식을 갖춘 개방적인 물이었다. 인간이든 국가든 불변의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흥망성쇠를 겪는다는 그의 세계관이 개방적 인식의 바탕이 됐다.

세상에 올려 퍼질
아주인의 BOOK!

인류사
기념비적 저술
학자의 책무·희열로
7년 씨름 끝 완역하다

김봉철 옮김, 지식의 원천이자 보고 <역사>

단순 해석 넘어
'어떻게 역사와 소통할 것인가'의
치열함 켜켜이

인간은 불완전·변화무쌍한 존재
행복한 인간인지
죽는 순간 결판
순간 순간에 일희일비 말아야

“
역사란
각자의 비판적 사유 가미할 때
진가, 매력 만끽 되지요
”



김봉철 교수는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일이 시간이 흐르면 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역사>를 저술했다”며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과거 인간들의 위대한 행적을 탐구해 영원히 기억될 유산으로 만들어 준 공로자”라고 전했다.

헤로도토스의 책에는 당대 인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무에서 유를 만든 건국 시조 키로스 2세, 페르시아의 번성을 안정화시킨 다리우스 1세, 오만함 때문에 나라를 잃은 불행한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 결사항전으로 불사의 명성을 남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그 주인공들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한 존재이며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 누가 행복한 인간인지는 죽는 순간에 가서는 결판나므로 현재의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저서를 탐구해 온 김봉철 교수는 이렇듯 역사 속 인간들은 현재의 인간들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며, 그것이 바로 역사 공부의 매력과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역사에는 광대한 시공을 아우르는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저장되어 있어서 후대 인간들을 위한 유익한 교범 역할을 한다. 역사 연구의 또 다른 매력은 실제적인 대상을 탐구한다는 데 있다. 관념적이지 않고 생생하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유'를 권하고 싶다. 역사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지식의 창출 과정을 이해하고 익히는 학습을 해라. 역사 공부는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판적 사유를 가미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

대학 시절 우연히 듣게 된 특강에서부터 정보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접했던 ‘암호’라는 단어 속의 여러 의미들이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때부터 정보 보안이라는 분야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덧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해외 정보 보안 관련 연구소 및 정부 중앙부처 사무관을 거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은 ‘정보 보안’이라는 용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보안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매우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를 쏟아내고 큰 주목을 받는 학문 분야가 되었지요.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보 보안 전문가가 미래 유망 직종으로 수년 동안 높은 순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 보안’은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암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암호(Cryptography)’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Kryptos’에서 나왔습니다. 암호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 받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장을 변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용을 숨기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학적 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IT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암호의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보안의 역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 로마의 장군이었던 카이사르(Caesar)가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사용한 비밀통신 방식(카이사르 암호)이 암호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암호에서는 문자들의 위치를 서로 바꾸거나(환자암호) 다른 문자로 대체하여(치환암호)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호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 기술이 큰 발전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거치면서입니다. 다시 말해 암호, 즉 정보 보안 기술은 전쟁과 함께 발전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전쟁, 즉 사이버 전쟁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안전하게 지켜야 할 중요한 정보 자산이 개인

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암호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정보 보안 분야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 특히 IT 분야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보 보안 분야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잡다양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폭넓게 경험하는 것도 발상의 전환,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소유가 곧 권력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정보 보안이라는 틀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학문을 폭넓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정보 보안 분야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를 적절하게 정보 보안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기법과 활용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보안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안 관련 기초 과목부터 응용 과목과 실습 과목 등 정보 보안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은 2015년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3개의 대학과 2016년 추가로 선정된 1개의 대학 등 현재 4개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는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서는 ‘최소가치를 인정받는 통섭형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교육과정과 글로벌 해외 연수, 다양한 장학금 혜택,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두 권의 도서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보안학
변화의 흐름,
열린 마음
폭넓은 공부의 세계

아주대학교,
첫 3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글로벌 연수, 풍부한 장학금 등
지원과 프로그램 매우 좋아

전공 소개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CYBER SECURITY

카이사르의 암호에서 미래의 정보전쟁까지

-최소가치의 직종 ‘정보보안 전문가’ 키우는 사이버보안학과



<암호의 해석>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례
‘문제 뒤의 숨은 이야기’ 해답 제공

<보안 위협 예측>
비전공자도 쉬운 빅데이터 보안활용법
전공자에게겐 ‘한계’ 넘게 해줘

● 정보보안학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꼭진 교수의 추천서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접해보는 것이 정보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꿈꾸어 왔던 정보 보안 전문가로서의 꿈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독일의 루돌프 키렌한 교수가 2009년에 쓴 <암호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제기암호화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암호의 역사와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궁금해질 무렵 접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역사 속 암호와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쉽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전쟁에서 사용한 암호 이야기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암호의 사례들 ▲암호의 해독에 관한 이야기 ▲암호의 발전 과정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번호 속에 숨겨진 암호 활용 사례 등 역사 속 암호의 쓰임새가 각각 하나의 스토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암호와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암호와 보안의 역사를 실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궁금해 할 수 있는 이론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어떤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론제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 좋은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입니다. ●



OSCARS

아카데미에 아주의 그린라이트를 컨다!

Siggraph 상영작 선정 등 잇단 쾌거
세계 최대 CG기술 전시회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와 재학생·졸업생들이 만든 3D 애니메이션 <그린라이트(Green Light)>가 각종 국제 영화제의 주목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그린라이트>는 2015년 세계 최대 규모 컴퓨터그래픽 기술 전시회인 '시그래프(Siggraph)'에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상영작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국 18개의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산호세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고 11월에는 북아일랜드 데리시에서 개최된 포일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받아 오스카 수상에 도전할 수도 있게 됐다.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은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후보군으로 이 작품들 가운데 심사해 최종 오스카 수상작을 결정한다. 15분33초 길이의 3D 애니메이션인 <그린라이트>의 제작에는 아주대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 20여명이 참여했다. 미디어학과 디지털 필름 연구실(DF Lab)을 주축으로 미디어학과 졸업생 김성민 감독이 연출했고 석혜정 교수가 총제작·비주얼 슈퍼바이징을, 장우진 교수가 미디어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운설(인디고엔터테인먼트)과 라이프미디어학원생들(김대환, 강정화, 김예람, 임정업, 정호정), 미디어학과 졸업

연출했고 석혜정 교수가 총제작·비주얼 슈퍼바이징을, 장우진 교수가 미디어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운설(인디고엔터테인먼트)과 라이프미디어학원생들(김대환, 강정화, 김예람, 임정업, 정호정), 미디어학과 졸업



생과 재학생 이대현, 허홍석, 이승기, 강창혁, 손광원, 김준성, 주지훈, 이학래, 김나라도 함께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도 받았다. 이 작품은 핵전쟁 뒤 폐허로 변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 마리가 살상무기로 쓰였던 고장 난 로봇 M-626을 만나면서 우정이 싹트는 이야기를 담았다. 인간의 무기로 쓰였던 전투 로봇들만이 남은 혼란의 세계에서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환경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벌이지만 대부분이 사망하고 어린 소녀만이 홀로 남게 된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오염된 도시를 찾아간 마리가 로봇 M-626을 수리해 데려가려 하지만 전쟁병기로 탄생한 이 로봇은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들 사이에 과거 M-626과 싸웠던 다른 로봇이 나타나며 둘 사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총제작과 아트디렉팅을 맡은 석혜정 아주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그린라이트〉는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의한 시각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갖춘 애니메이션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동안 예술성이 강한 독립 애니메이션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기술성과 대중성을 내세운 한국 애니메이션들의 수상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석혜정 교수는 "아카데미 영화제 같은 경우 대중성을 갖춘 애니메이션에 호의적이라 2018년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그린라이트>역대 수상 List



BEST ANIMATION - FOYLE FILM FESTIVAL 2016
포일영화제 2016 베스트 애니메이션상



BEST ANIMATION - SAN JOS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16
새너제이 국제 단편영화제 2016 베스트 애니메이션상



BEST ANIMATION - SOUTHERN SHORTS AWARDS 2016
서던 단편 어워드 2016 베스트 애니메이션상



BEST CHARACTER - VIEW CONFERENCE 2016
뷰 컨퍼런스 2016 베스트 캐릭터상



GOLD AWARD - DIGICON6 KOREA 2016
디지콘6 2016 황금상



4TH PRIZE - WEB ANIMATION FESTIVAL 2016
웹 애니메이션 축제 2016 4위

▶아주대 산학원 내부사회를 열던 날 주요 멤버가 모여 기념 포즈를 취했다.

<그린라이트> 제작진 및 자문

김성민 감독, 석혜정 교수, 장우진 교수, 김지은 교수, 정운설, 김준성, 이대현, 손광원, 허홍석 이승기, 강창혁, 강정화, 이학래, 주지훈, 김예람, 김나라, 김대환, 최지우, 정호정, 구보니, UBY

*홈페이지 - <http://dfab.ajou.ac.kr/greenlight/>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구직이 어려운 시대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과 성을 다해 외국어 공부를 하고 각종 스펙을 쌓아가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성찰과 고민은 부족하기 쉽다. <아주인사이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호 삼화왕관·김세중 동문(산업공학과 07)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IT 소재 기업 동우화인켐에 재직 중인 안경현 동문을 만나봤다.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본인이 맡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다면?

2013년 7월에 동우화인켐에 입사했다. 우리 회사는 일본 스타모토화학의 자회사로 IT 소재를 제조하고 있다. 반도체·LCD용 케미칼과 LCD 소재를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쓰이는 고해상도 멀티 터치스크린 역시 생산한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납품한다. 평택과 익산에 사무실과 공장이 위치해있다. 케미칼 사업본부 양산기술팀, 그 중에서도 공정기술파트에 속해 일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공정, 환경안전 측면에 대해 검토하는 일을 한다.

● 직장인으로서 강소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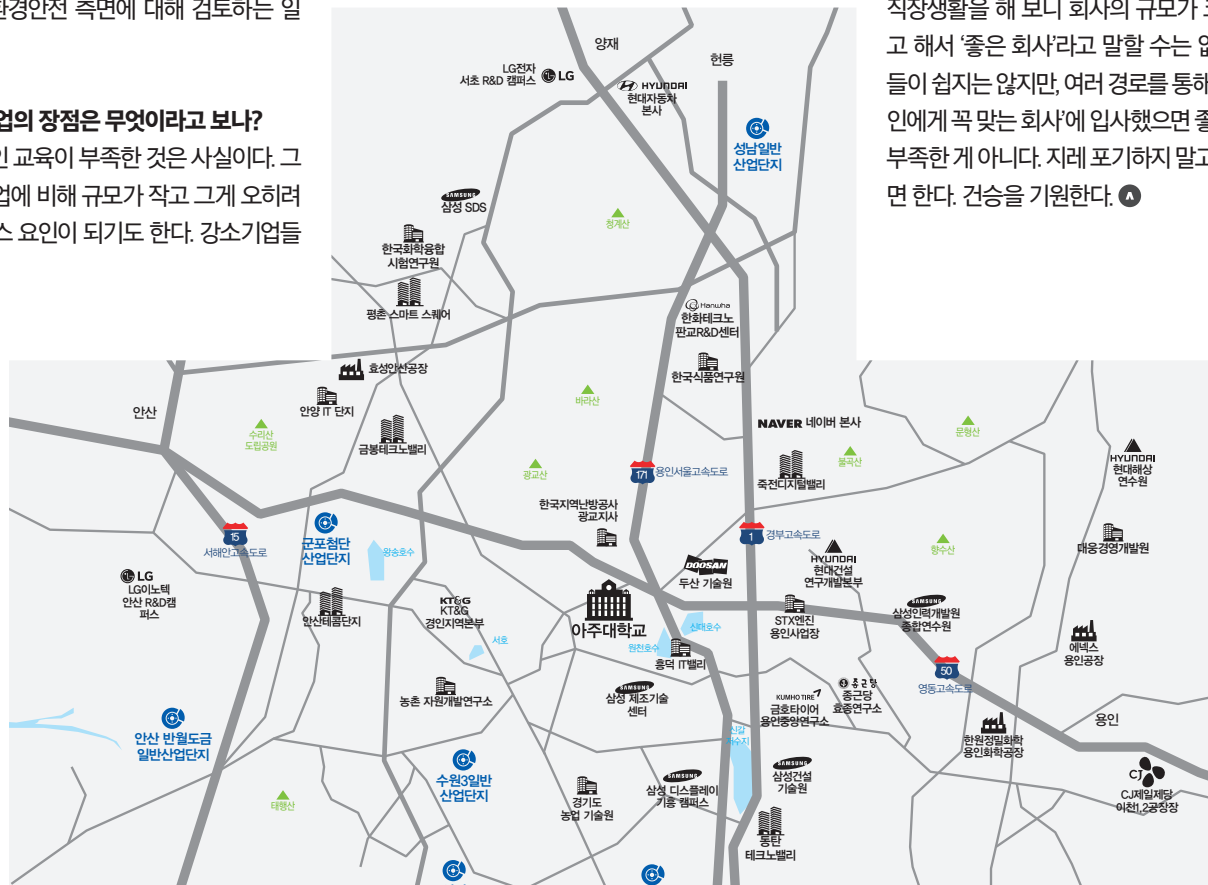
대기업에 비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강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그제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강소기업들



Ajou Location Premium ④
강소기업으로 가자!

DONGWOO
FINE-CHEM

안경현 화학공학과 06 / 동우화인켐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타모토화학의 자회사로 1991년 설립됐다. 반도체·LCD용 케미칼과 LCD 소재를 생산. 우리 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으로 사업을 넓혀 정보전자소재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와 공장, 광학소재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전라북도 익산 공장에는 전자재료연구소가 함께 있다. 2860여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다.

은 신입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성장하는 회사 안에서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함께 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입사 전 대학시절과 지금, 회사와 직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대학 시절 막연히 짐작했던 것과 비교해, 업무를 하면서 '전공 지식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 지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파고 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흐름을 짚어내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동우화인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에게 채용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고 싶다. 우리 회사의 채용은 서류 및 인적성 검사와 2번에 걸친 면접(전공면접-임원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고려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실된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대비하는 게 좋겠다. 실제 직장생활을 해 보니 회사의 규모가 크고 연봉, 명성이 높다고 해서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 후배들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하고 탐구해서 '본인'에게 꼭 맞는 회사에 입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보았으면 한다. 건승을 기원한다. A



제대, 그리고 2000년의 봄

1999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봄 새 학기에 맞춰 돌아온 학교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00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와 있었지요. 연신 “선배님 밥 사주세요”를 외쳐대던 새내기들. 그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학 생활의 시작에 가슴이 설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얼 해도 즐거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PC게임을 하고, 엠티에 야유회, 운동회, 동문회까지. 정말 놀 수 있는 건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 매일이 즐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 한 구석엔 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막함'이라는 세 글자.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학 생활, 앞으로의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나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학점을 따고, 남들 하는 대로 토익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군복무까지 마쳤지만 철이 덜 들었던 걸까요. 제대 후 학교로 돌아왔던 저의 2000년은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코스비밀보

그렇게 '막막'했던 시절. 우연히 계절학기 교양 과목으로 <PC 활용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강의 마지막엔 과제가 있었는데, 바로 개인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채울까 고민을 하다 우연히 '학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창립멤버로 활동했던 경영학부의 소학회 <코스비>. 회원들의 잡다한 동정과 학회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신문 같은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장난 삼아 글을 쓰고 사진을 붙였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반응이 괜찮다 보니 2편을 만들게 됐고요, 또 2편이 3,4편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혼신의 정성을 담아 글을 쓰는 자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굳이 밤을 새워 기사를 쓰고, 밤을 새워 아이디어를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러나?' 잠도 못 자고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일'이라는 게 몸은 고되어도 즐거울 수가 있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다시 막막

그렇게 인생의 1차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다시 '막막'해집니다. 좌표가 설정은 됐지만 좌표를 향해 어떻게 진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디 물어봐 데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언론사에 진출해 있는 선배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고사'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언론 국가고사'가 있는 줄 알았던 형편이다 보니, 다른 건 가리고 채길 처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다니고 매달렸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기자 협회에서 개최하는 저널리즘 특강에 참석하기도 하고, 언론사에서 여는 기자학교, 인터넷 카페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현·퇴직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런저런 폭풍 질의를 쏟아내기도 하고, 글쓰기 좀 봐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불꽃같은 열의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도무지 이런 '불꽃 열의', '맨땅에 헤딩'



내 정신의 고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주의 정신이죠”



만으로는 비늘구멍이라는 언론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5명의 기자를 선발한다는 모 일간지 시험 전형에 당당하게 지원을 했는데, 아주 당연하게도 탈락했습니다. 이 전형에 무려 150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원서를 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스테디 그룹

KBS는 언론사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무척 높은 언론사였습니다. '맨땅에 헤딩'만 하던 제가 오늘날의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건 바로 '스테디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와 학교 게시판 등에 스테디 그룹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아주대와 수원 지역에 거주하던 4~5명의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도서관이나 다산관 지하에 있는 분임토의실에서 언론사 입사준비를 위한 스테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무척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인이 되길 원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한 건 혼자 공부할 때 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두꺼운 상식책과 한국어책을 일주일에 한 첩터씩 마스터하고, 우리끼리 시험을 봤습니다.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주요 주제를 가지고 편을 나눠 토론을 했고, 작문과 논술과제를 낸 뒤 서로 돌려보면서 혹독한 빨간 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스테디 모임에서 찔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 해 봐야 했습니다. 우리 스테디 그룹은 '막막함'에서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함께 시작한 5명의 회원 가운데 중앙 언론사에 진출한 사람이 3명, 그리고 국경원에도 1명이 합격했으니 지금 돌아보면 기하 '명문 스테디'라 부를 만합니다. '스테디 그룹'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정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되기 마련이지요. 두 번째는 공부의 효율성입니다. 혼자서 하는 공부는 지루하고 힘들기 마련인데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훨씬 재미있어지고, 이 재미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비슷한 상태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기대다 보면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단 언론사 입사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후배들에게

하루하루 술만 퍼 마시던 '막막한'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열정적 준비생'으로 바뀌게 된 까닭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좌표 없이, 막연하게 학점을 따고 외국어 점수를 받고 이러 저런 '스펙 쌓기'에만 열중한다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는 것, 바로 그게 열정과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힘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후배들을 보면 그런 제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고, N포세대에 '열정페이'란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배들은 힘이 들지만 정주저앉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게 아주대의 정신입니다. B

이승훈 경영학과 95 / KBS 기자

RESEARCH NEWS>>>

줄기세포 항암치료제 한미약품에 기술이전

서해영 교수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해영(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팀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교모세포종 항암 치료제 기술을 한미약품에 기술이전하기로 했다. 서 교수팀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정상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중간엽 줄기세포에 사이토신 데아미나제(cytosine deaminase, CD)를 삽입한 것이다. CD는 인체에 존재하지 않는 효소로 항진균제로 사용되는 '5-FU' 물질을 광범위항암제인 '5-FU'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실험 진행 후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뇌종양을 비롯한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해 시험할 계획**이다.

서 교수팀의 줄기세포치료제 기술은 그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 개발사업과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연구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컨설턴트 지원사업 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서해영 교수팀과 한미약품 그리고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 등이 참여해 진행될 신약개발 연구는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산업자랑통상부의 지원을 받는다.

땀으로 건강상태 점검하는 센서 개발

강대식 교수

기계공학과

강대식(기계공학과) 교수가 고려원 뉴욕주립대 교수와 공동으로 피부에 붙이면 땀의 성분을 분석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는 아주대, 뉴욕주립대, 노스웨스턴대 공동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증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땀 성분 분석을 위한 부드러운 웨어러블 장치(A soft, wearable microfluidic device for the capture, storage, and colorimetric sensing of sweat)>이다. 땀에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땀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로는 당뇨병을, 염화이온의 농도로는 나트륨성염증 같은 질환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다. 땀의 산도를 측정하면 몸의 탈수 정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센서가 땀을 모을 수 있는 수백 μm (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길이의 통로(채널)를 여러 개 냈다. 채널 안에는 포도당, 염화이온, 수소이온 농도 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을 각각 넣었다. 지름 3cm짜리 원 모양인 센서의 두께는 700 μm , 무게는 3g 정도에 불과해 몸에 붙여도 불편함이 없으며 신속성 있는 파스처럼 피부의 결에 따라 늘어났다. 측정된 데이터는 센서 가장 윗부분의 근거리 무선 통신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색 변화의 의미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효율성·안정성 높은 태양광 촉매 전극 개발

서형탁 교수

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서형탁(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팀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태양광 촉매 전극'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 결과는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1월24일자 표지 논문으로 소개됐다. 수소는 사용 후에 물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차세대 청정 연료원으로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수소 생산은 화학 연료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학연료 대신 태양광을 이용하는 광·전기 화학적 물 분해기술 연구가 최근 활발**하다. 이 기술의 핵심은 태양광으로 생성된 전하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광전극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광변환 효율이 높으면 빨리 부식이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광변환 효율이 떨어져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 교수팀이 개발한 광전극은 3가지 다른 종류의 나노 구조와 박막 소재를 쌓은 탠덤(tandem)구조로 단일 전극이 빛에 직접 반응하는 일체형 광촉매 전극이다. 이는 태양전지와 촉매전극을 분리하거나 복수의 광전극판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다. 개발된 광전극은 빛을 받아 (+)전하인 양공과 (-)전하인 전자를 생성하는 광흡수 산화물 나노관, 전하가 서로 반대의 전극으로 이동하도록 전하 분리를 촉진하는 산화물 나노와이어 그리고 광부식을 막으면서 표면으로 높은 에너지의 정공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나노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전극은 빛에 의해 생성된 전하들이 손실 없이 양극과 음극으로 분리되어 물에서 수소를 고효율로 발생시켰다.

간암 위험 진단 정확도 높이는 임상모델 개발

조성원·조효정·김보현 교수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영상의학교실

아주대학교 연구진이 B형 간염으로 간경변증이 생긴 환자의 간에 생긴 혹 모양의 작은 병변(결절)이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위험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계산법을 개발했다. 아주대병원 간센터의 조성원·조효정(소화기내과), 김보현(영상의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간세포암 진행 위험도 예측 모델'로 관련 논문은 지난해 미국 소화기학회와 내이차출판그룹에서 발행하는 <미국소화기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실렸다. 연구팀은 아주대병원에서 지난 2005~2013년 CT 검사를 받은 간경변증 환자들 간에 새로 생긴 2cm 미만 혹은 간세포암으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위험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7가지 주요 위험인자를 선별하고 점수화했다. 이어 간경변증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B형간염 그룹을 대상으로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뉜 위험도를 검증해냈다. 그 결과 혹의 크기, AFP 농도, 간세포암 이력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간암은 염증으로 간이 섬유화돼 기능이 떨어진 간경변증이나 만성 B형·C형간염에서 시작된다.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청 AFP 농도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간경변증 환자의 간에 생긴 혹을 조기 발견해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를 이미지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6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5명의 교수가 정든 강단을 떠났다. 정태웅(법학전문대학원), 유연우·이석현(응용화학생명공학과), 오홍국(기계공학과), 방석범(경영학과)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이했다. 퇴임교원을 환송하는 '전체교수 워크숍'에서 유연우 교수는 "돌이켜보면 아주대만큼 교수활동을 자유롭게 지원해준 대학이 없었다"며 "덕분에 다수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를 맞아 16명의 신입 교원이 아주의 새 가족이 됐다. 신입 교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은 지난 2월23일 열렸다. 신입 교원은 의과대학 3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아주대학교는 이번 신입 교원 선발에 '열린 특별 채용'을 도입했다. 학과나 초빙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 채용을 통해 2명의 신입 교원을 선발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임교원 명단>

- ▲조병남(기계공학과, 조교수)
- ▲한승용(기계공학과, 조교수)
- ▲고재성(기계공학과, 조교수)
- ▲이재현(신소재공학과, 조교수)
- ▲김상원(전자공학과, 조교수)
- ▲한경식(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 ▲이승환(경영학과, 조교수)
- ▲최환호(경영학과, 조교수)
- ▲이한수(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이병환(다산학부대학, 비정년트랙 부교수)
- ▲김진희(다산학부대학, 비정년트랙 조교수)
- ▲전유영(교육대학원, 비정년트랙 조교수)
- ▲Jinhua Cui(경영학과, 비정년트랙 조교수)
- ▲박도양(의학과, 조교수)
- ▲정전엽(의학과, 조교수)
- ▲지숙(의학과, 조교수)



AWARD & SELECTION

경영대학, 한경비즈 전국경영대학평가 11위



경영대학(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이 주간지 한경비즈니스의 2016 전국 경영대학평가에서 11위에 올랐다. 한경비즈니스 전국 경영대학평가는 국내 200대 기업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실무 관련성 ▲업무 적응력·조직 융화력 ▲발전 가능성 ▲창의적 업무 해법 ▲국제화 시스템 ▲정신성과 책임감 ▲신인사원 채용 의향 ▲전학 추천 등 총 9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평가에서 아주대 경영대학은 2014년에 29위, 지난해 17위에 이어 올해 11위로 계속된 순위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에서 9위~12위에 올라 선전했다.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수원시 장안구 소재 KBC리네움에서 개최됐다. 총장, 차장단, 각 단과대학 학장과 학과장 등이 참석해 아주대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학과 및 단과대학 역량 강화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식 사학과 학과장이 세미나 중심 교육 체제에 대해 발표했고, 안병민 신소재공학과 학과장은 교수 협업을 통한 학과 연구 특성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감동근 전자공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 발표와 미래 대학 환경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마련됐다. 인도대학 박관규 학장, 다산학부대학 한호 학생과 공과대학 권용진 부학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대학의 대응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날에는 ▲단과대학 자율성 강화 ▲연구 활성화 ▲유학생 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율मे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학교는 워크숍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더 붙어 학과장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NEWS>>>

EVENT

BMW KOREA '유쾌한 반란' 기금 3억 쾌척 통일 교육 맞손



BMW 코리아가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3억원을 쾌척했다. BMW 코리아는 2년간 3억원을 약정하고 1년차 기금 1억원을 우선 납입했다. 김동연 총장은 지난 12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와 조찬 회의를 갖고 통일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한 '유쾌한 반란 기금' 출연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BMW 코리아는 2년간 '유쾌한 반란 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하고, 독일 정부는 통일 관련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BMW 코리아가 쾌척한 기부금은 아주대의 ▲통일 관련 교육과 연구 ▲통일 인식 제고 캠페인 ▲남·북한 관련 국제 협력 관계 증진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그간 아주대가 추진하는 '유쾌한 반란'의 취지에 적극 동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매년 2명 학생의 인턴 활동(한국지사 3개월-독일본사 3개월 근무)을 지원할 뿐 아니라 AFTER YOU 프로그램, 파견학기제 파르너 기업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이번 기부금을 활용해 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계획이다. BMW 코리아와 독일대사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AWARD & SELECTION

교수 워크숍, 교육·연구 우수 교수 시상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교수 워크숍이 2월28일 다산관 강당에서 열렸다. 장년을 맞아 퇴임하는 교수들에 대한 기념패 수여와 ▲신임 교원 소개 ▲교육 우수 및 연구 우수 교수 시상 ▲교육 및 연구 우수 사례 발표 ▲사단별 발표와 토론 이어졌다. 교육 우수 교수 부문 대상은 강경란 교수(소프트웨어학과)에게 돌아갔다. 이 부문 우수상은 김은하(심리학과) 교수, 송하석(다산학부대학) 교수, 황동선(수학과) 교수, 김현국(영어영문학과) 교수, 박승혜(다산학부대학) 교수가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시상금으로 주어졌다. 연구 우수 교수 부문의 실버(Silver)상은 강대식(기계공학과) 교수, 조인선(신소재공학과) 교수, 김문석(대학원 분자화학기술학과) 교수, 이교범(전자공학과) 교수, 최동경(전자공학과) 교수, 장혜정(화학) 교수, 김형수(약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실버상 수상자들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수상한 강경란 교수와 장혜정 교수는 각각 교육과 연구 부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강경란 교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에 오도록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WARD & SELECTION

대학 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열어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수원시 장안구 소재 KBC리네움에서 개최됐다. 총장, 차장단, 각 단과대학 학장과 학과장 등이 참석해 아주대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학과 및 단과대학 역량 강화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식 사학과 학과장이 세미나 중심 교육 체제에 대해 발표했고, 안병민 신소재공학과 학과장은 교수 협업을 통한 학과 연구 특성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감동근 전자공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미래' 발표와 미래 대학 환경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마련됐다. 인도대학 박관규 학장, 다산학부대학 한호 학생과 공과대학 권용진 부학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대학의 대응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날에는 ▲단과대학 자율성 강화 ▲연구 활성화 ▲유학생 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율मे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학교는 워크숍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더 붙어 학과장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PEOPLE

EVENT

'아주 특별한 졸업식' 열려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월22일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426명, 석사 450명, 박사 14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 사상은 ▲아주영예상(전체 수석-이사장상)과 ▲아주명예상(단과대학 수석) ▲아주인재상 -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 ▲감사상 부문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신임된 아주인재상은 아주대학교의 대학이념인 인간존중과 실사구시, 세계일가를 실천해온 졸업생들에게 돌아갔다. 인간존중상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학위를 물심 양면 도와온 학부 졸업생 구말곤 학생(기계공학과)이 수상했다. 실사구시상은 파킨슨병 치료법 연구에 매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온 의학전문대학원 허은실 학생(박사)이 받았고 세계일가는 세계 무대를 목표로 교양학생과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길을 적극 개척해온 김현준 학생(학사, 경영학과)에게 돌아갔다. 졸업생들이 직접 추천하고 투표해 뽑은 감사상은 가족사 빨래방 이모님들이 받았다. 이날 졸업식 말미에는 김동연 총장과 학장단들 비롯한 교수진, 재학생 후배들이 격정말야요 그대를 합창하며 졸업생들을 환송했다.

EVENT

새내기 환영해요~ 서로 알아가는 입학식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식이 2월23일 체육관에서 열렸다. 2122명의 신입생이 새로운 아주 가족이 됐다. 첫 순서인 '신입생들의 이야기'는 주철환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진행을 맡았다. 신입생 1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재학생 선배들을 대표해 자영림(문화콘텐츠학과), 이유영(기계공학과) 학생이 각각 과련학기제와 AFTER YOU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선문별 LG스포츠 사장(기계 73),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학 88), 양재진 간병인 대표회장(의학과 94), 배우 김지훈(심리 00)을 비롯한 동문 선배들도 축하 영상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방승인 알베르토 몬다는 <알베르토의 5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았다. 그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컴포트 존(comfort zone)에서 벗어나야 좋은 일들이 생긴다'며 모험과 도전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동연 총장은 <유쾌한 반란> 특강을 통해 과련학기제를 소개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도록 장려하고자 한다"며 "그러한 중량을 겪으며 '훌륭한 뱀사당'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OPLE

김동연 총장 베트남 방문, 대학·현지 기업과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총장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을 방문해 자재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동연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1월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자재 대학인 베트남국립대학과 하노이문화대학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국립대학에서는 MOU를 체결하고 교환학과 파견과 동남아 연구소 교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어 Global YEM 베트남 6기 참여 학생 91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GYE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 글로벌 청년사업가)은 해외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김동연 총장 일행은 월드오타(World-OKTA) 하노이 지회, 코트라(KOTRA) 무역관,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를 방문해 글로벌 인턴십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족회사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동문들과의 간담회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아주대 LINC사업단과 가족회사도 동행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NEWS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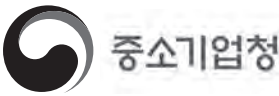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꿈의 대학’ 업무협약



아주대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꿈의 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꿈의 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진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학생 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 4월 시작된다. 업무 협약식은 지난 2월1일 오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동연 총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아주대는 ‘경기 꿈의 대학’ 운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각종 교류와 정보 교환 등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경기 꿈의 대학’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특별 개설한다.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하면서 진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전국 8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AWARD & SELECTION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단독 선정



아주대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매년 사업주진 성과에 따라 연장하는 방식으로 1차 사업기간은 올해5월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5억원이다.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2차년도에는 장비구축 및 사업운영을 위해 연간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에이티브팩토리는 창업에 위한 아이디어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구현, 시장진출 등을 일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아주대는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별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중기청 시제품 제작터(5개) 및 기존 크리에이티브팩토리와 연계한 운영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캠퍼스플라자와 산학협력관에 마련되는 1051㎡의 전용공간에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창업상담실과 누구나 방문하여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고 나눌 수 있는 창업카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화 시켜볼 수 있는 DIY숍,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는 ‘전로랩’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PEOPLE

장애 학생 간담회, 소통의 장 마련



지난 12월13일 중앙도서관 커뮤니티라운지에서 김동연 총장과 장애 학생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아주대에 재학 중인 학생 8명, 학부보 2명과 김동연 총장, 조재형 학생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이정선 씨가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겪은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기숙사와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과 환경에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동연 총장은 장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숙사 시설 개선 ▲수업 지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김요정 학생(사회학과)은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 학생들, 교직원들이 ‘장애우 학생이 아닌’ 기자로 대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다른 이들이 장애에 보다는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WARD & SELECTION

김영진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전자공학과 김영진 교수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논문의 제목은 ‘인지적 색 차이 기반의 이미지 품질 평가 기법 및 왜곡 종류에 따른 평가 시스템 제안’이다. 이 논문은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 분야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김영진 교수는 디스플레이에서의 이미지 평가, 최적 시각 만족을 위한 이미지 처리 및 이미의 가측화에 대한 연구를 저전력 시스템 관점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은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중견 핵심과제의 지원이 바탕이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정보과학회 발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 중 가장 우수논문을 뽑아 매년 우수논문상을 주고 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컴퓨터 분야의 최대 학회로 197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구자 3만5000여명이 소속되어 있다.

AWARD & SELECTION

드론시범사업 대표 사업자로 선정



아주대가 국토교통부 드론시범사업 대표 사업자(연구책임자 조종열 교수)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맞아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전국 7개 전용 공역에서 25개 대표사업자가 참여해 진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12월말 10개 시범사업자와 3곳의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환경에서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업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대는 화물운반, 재난지역과 오지에 구호품과 의료품을 전달하는 ‘물품수송’ 분야에 참여한다.

PEOPLE

유문숙 간호대 학장, 한국간호대학장 협의회 회장 선출



유문숙 간호대학장이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는 전국 4년제 간호대학장 및 간호학과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간호 교육 향상, 회원 간 유대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되어 현재 118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유문숙 학장은 지난해 협의회 의 제2차 회장을 역임했다. 유 학장은 아주대 간호학과장, 간호과학연구소장으로 일했고 수원시 간호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강래성 우수 논문상’ 선정



‘강래성 우수 논문상’에 이서운(생명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학생과 이은영(국 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월16일 오희테크에서 열렸으며 강래성 세원EPC 회장, 강준순 대학원장, 박호환 경영대학원장,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2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이 상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래성 세원EPC 회장이 매년 기부하는 500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 회장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문으로 2013년 아주대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서운 학생과 이은영 학생은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서운 학생은 SCI급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TRAIP-RNP206 is required for recruitment of RAP80 to sites of DNA damage’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은영 학생은 <한국여성분자학회>에 ‘고정화 시의 공동체 인식 변화양상’ 논문을 냈다.

NEWS

EVENT

수원시 공무원 교육과정 제3기 입학식



수원시 중견 공무원 교육과정인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제3기 입학식이 1월 16일 용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원시 소속 6급 공무원 307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선발된 수원시 중견 공무원들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의 지방행정 ▲올바른 공직관 ▲직무법규 ▲정보화 교육 등 19개 교과목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은 지난 2015년 제1기를 시작으로 3회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열태영 시장은 “민주주의의 적은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각하고, 이러한 문화를 깨지 않으면 수원시의 발전은 어렵다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자기주장’이 분별하고 정곡 마진 드로 무장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시장은 이어 “핵심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 전체 공무원의 1%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교육에 참여하지만 나비효과를 일으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EOPLE

로스쿨 이현환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취임



법학전문대학원 이현환 교수가 한국공법학회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현환 교수는 지난 12월16일 서울중구 한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공법학회는 한법회 행정법 연구자들,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회로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공법학회는 연 4회 학회지 <공법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이현환 교수는 “공법학의 측면에서 2017년은 평장이 중요한 해”라며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오는 6~7월 국제 인권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이라며 “유라시아의 인권의식을 외국에 소개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카다 중등 학자들을 초청해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DONATION

강원구·공배 동문 등 기부금 쾌척, 감사패 전달식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와 강원구·공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12월13일과 14일 진행됐다.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와 강원구 동문(이퍼글로벌 대표, 화공 85)은 각각 1000만 원을 중앙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를 대표해 이종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강원구 동문은 앞서 ‘AFTER YOU 프로그램’과 1-1-1 캠페인에도 기부금을 쾌척한 바 있다. 김동연 총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인문교·중·고·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 학생들은 전시를 참관하고 평가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페스티벌을 주관한 소프트웨어학과(학과장 류기업)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미래부로부터 총 6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학과는 전공생 뿐 아니라 다른 전공 과목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학 협력 새 길- 아주대 가족회사를 소개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기업과 대학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 자문이나 장비 활용, 제작자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를 대학이 제공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 역량 강화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윈윈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아주대학교의 가족회사는 총 1155개(2017년 2월 기준)로 이들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소프트웨어(241개) ▲전기·전자(235개) ▲기계·금속(218개)이다.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1015개로 전체 가족기업의 88%를 차지한다. 신창과 승인장자를 통해 아주대의 가족이 된 기업들은 ▲제작자 교육 ▲산학공동 연구 ▲공동 장비 활용에 있어 대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주대는 가족회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었다.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족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우수 가족회사들이 참여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주관한 이 행사에 참가했던 가족기업 중 8개 회사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 1월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LINC사업단의 베트남 출장에 동행한 가족기업들 역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베트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기업, 기관들과의 미팅을 통해 이 지역 비즈니스 동향과 소비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도 나왔다. 한 가족기업 관계자는 “아주대 가족기업으로서 베트남 무역시장에 참여해 현지 시장과 수출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PEOPLE

최기주 교수, 대한교통학회 회장 선출



최기주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제18대 대한교통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이다. 최기주 선임 회장은 1992년 미국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 1994년부터 아주대 교수로 강단에서 왔다. 대한교통학회는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발전을 위해 1982년 설립됐다. 4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교통학회지>, <교통기술과정책> 등을 발간하고 있다. 학회는 교통 분야 논문 영향 지수 3위에 올라있는 세계적 수준의 SSCI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도 발간하고 있다.

DONATION

김선기 동문 등 기부자에 감사패 전달



김선기 조인텍 대표(전자 79)를 비롯한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2월3일 용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김선기 조인텍 대표(전자 79)가 전자공학과 발전기금으로 4000만원을 기부했고 축구부 후원회가 축구부 후원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동운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와 재해설 건축학과 교수도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소프트웨어학과와 건축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통시스템공학과 최기주 교수와 최 교수의 부인 이미혜 씨도 각각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장학금은 ‘최기주-이미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동연 총장은 기부자들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화답을 나눴다.





2017
SPRING



CREDITS

PUBLISHER	president	김동연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남경호
EDITOR	brand strategy dept.	이솔 심경석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business administration_senior mathematics_junior	정우준 정구윤 강건희
ART	brand strategy dept. alaska design dept.	권지영 한성화 신혜원 김동희 박시연
PROCEEDING ASST	digital media	강민석
DESIGN & PRINT	alaskaindigo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박승하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pyright © 2017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간행물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심장은 사탕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니?
네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내 두 발도 다 허물 수 있는데.

사탕은 가장자리부터 녹아가는 심장이구나.
불이 부어오르는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후를 이루는 것들.
우리를 기쁘고 슬프게 하는 것들.

같은 책을 읽으면 같은 심장을 나눠 가진 거래.
우리 형이 그랬어. 형은 정말 멋있어.
너는 주근깨가 별 같다. 한밤중에 보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눈…… 오후가 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고 아줌마가 그랬어.
우린 서로 다른 교회로 갈 거라고.

스프같이, 곤죽같이 피아노 안에서, 열두 시에 한 번
세 시에 한 번, 내려쳐지는 해머……
너는 거의 녹았다. 투명한 액체로서 있다.

새총에 머리가 깨진 작은 새처럼.
나의 두 발은 이렇게 매일 투명해지는데

새는 가장자리부터 차가워지는 심장이구나.
잠든 우리의 머리 위로 슬픔의 천사와 기쁨의 천사가
번갈아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뜬다.

주민현 국어국문학과 08/2017년 신춘문에 등단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당선작의 제목은 <전쟁의 시간>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5년 아주대학교가 주최하는 문학 공모전 수필 부문에 응모해 수상한 바 있다. 생활 속, 주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에서 시의 소재를 얻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시인이 되고 싶다.